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25호 2011년 3월 2일 수요일 (음력 1월 28일 · 불기 2555년 · 주간)

같이 사는 상대를 그냥 날씨나 꽃처럼 생각하세요. 피는 것도 저 알아서 피고, 지는 것도 저 알아서 질 뿐, 도무지 나하고 상관없이 피고 지잖아요. 다만 내가 맞추면 돼요.

-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불교 자주, 종단 지도부 부터

박세일 서울대 교수, 제2차 한국불교중흥토론회서 주장



"현재 한국불교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의 문제는 국가나 정권의 문제이기 보다는 불교내부의 문제거나 종단 지도부의 의지 문제다. 교단 내부에서 대정부 활동에서 교세에 의지해 합리적 논리를 저버린다면 교단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할 것이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2월 23일 주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2월 대토론회'에서 박세일 서울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불교계가 주장하는 정부권력의 종교 침해의 원인이 종교 내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현재 한국불교가 국가나 정권에 예속돼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고 있는지에 '아니다'고 답을 내렸다"며 "한국불교는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의 재산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스님들의 원력만 있다면 불사하고 포교하는데 적어도 제도적 정책적 장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불교교단의 국가정책에 대한 주장을 정부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불교적 발상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사회활동에 앞서 교세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교수는 "종단 지도부 스님들은 불교를 외호·홍포하기 위해 제도와 예산 등의 부분에서 정부와 협상해야 하고 때론 협조를 구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교단의 대정부 활동이 합리적 논리가 아닌 교세에 의지하게 되면 종교 관련 중요 정책을 정부의 시혜적 결정에 의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개입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정치권력의 종교계에 대한 개입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조계종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불교적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교수는 국가 정책 중에 종교계가 기본적인 인권과 공동체 생존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불교계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중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치밀한 합리적 논리가 불교계 내부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정부·대사회에 필요한 기준과 논리가 준비돼야 하며 불교사회과학원과 같은 불교정책연구기관이 활성화되야 한다"며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또 △역경의 완성 △계율정신의 회복 △수행가풍의 확립 △승가교육제도의 개혁 △포교활성화와 세계화 △종단과 사찰운영의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들었다.

보광 스님은 "엄밀히 말하면 불교계 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불교의 자생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현재 종단이 진행하는 5대 결사 등 자발적인 결사 운동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에도 새싹을 내 살아남은 것은 각 사찰에서 일어난 신앙결사운동 때문이었다"며 "선수행만의 정체성 강조로 생긴 일반신도들의 신앙적 갈증을 메우기 이해 가각신앙운동인 결사운동과 함께 타력신앙의 논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결사정신 만이 살 길"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 발제한 원택 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교가 정권에 예속돼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 할 것으로 그 결과는 늘 법난에 준한 사태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가 국가의 압박을 받을때는 우선적으로 불교 내부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예경 논쟁에서 혜원 스님이 수행정신과 교리이해로 법난을 극복하고 사회신뢰를 지켜나간 것과 같이 지금 종단은 성철 스님의 봉암사 결사 정신을 상기해 철저한 수행으로 일반 대중의 선망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 자부심 가져야"

반면 첫 번째 토론자로 참가한 민족문화수호위 위원장 영담 스님은 "법치국가에서 종교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결벽증은 오히려 자신에게,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정치를 정치권력과 정치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법을 만들고 고치는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병준 교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특히 남성들 중 불교신자로 공표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며 "이유는 '불교'로 표현해 좋을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노덕현 기자

교세 의존 대정부 활동은 정교유착 빌미
정부와 소통 거부, 불교적 방법 의문
불교중흥 합리적 논리 내부서 찾아야

■박세일 교수는?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1985년 KDI 연구위원, 1985~1994년 서울대 법대 교수, 1994~1998 청와대 정책기획·사회복지 수석비서관, 2002~2004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2004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늘 봄 소식은 꽃이 전해온다. 2월 20일 부여 무량사에는 목련이 꽃봉오리를 부풀리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섰으면 금방 꽃이 필 것만 같다. 곧 하얀 꽃을 틔울 목련이 영산전 마당에서 멀리 5층석탑에게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선암사 재산권 이양 순천시장 관리인 해임

순천 선암사 분규 종식을 알린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순천시로부터 찾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6일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조계종·태고종 협상위원회(위원장 일문·화경)이 요청한 재산관리인 해임 요청에 따라 22일 순천시장을 선암사 재산관리인직에서 해임했다.

문광부는 양측 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재산관리권 이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위원회는 양측 선암사 주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관리권 공동인수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산관리권을 빠른 시일 내에 인수받을 예정이다.

협상위는 부동산 및 문화재 등 선암사 소유의 재산현황을 공동 조사하고,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암사 재산관리권 인수 및 향후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협상위원회(위원장 일문·화경)는 2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길상사, 누가 망쳤나?

법정 스님 열반 1주년 만에 이전투구(泥田鬪狗)

이번 일은 한번은 거쳐야 할 일이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삶을 살라"고 늘 강조했다. 길상사를 말하면 '맑고향기롭게 근본 도량'이 아니라 '법정 스님이 시주 받은 사찰'이 떠오른다. 맑고향기롭게를 말하면 '참 보살들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전 유행한 연꽃 스티커'가 떠오른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이 주지 소임 2년, 맑고향기롭게 이사직 10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수행자의 길을 떠났다. 법정 스님 입적 1년만이다. 대중이 만들어 놓은 실패작품이자 기회다.

덕현 스님은 2월 7일 맑고향기롭게 소식지를 통해 '이사장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21일 길상사 홈페이지에 '그림자를 지우며'라는 글을 올렸다. 그동안의 고뇌와 내부의 문제를 소상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드러난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 내부 갈등은 가십거리가 됐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은 일련의 일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론 등 에서는 길상사 前 주지 덕조 스님과 덕현 스님의 주지를 둘러싼 욕망으로 분석했다. 과거 법정 스님과 덕조 스님의 갈등을 들먹이고, 법정 스님의 유언도 다시 펼쳐졌다. 배후조종자가 있다는 둥 조작된 유언이라는 둥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았다.

덕조 스님은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여기(불일암)에 있으니까 서울 가기 싫어졌다. 서울에서의 삶은 고갈되는 삶이고 수행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고 법정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덕현 스님이 떠난 후 문도회의를 통해 길상사 주지에 법정 스님의 다섯번째 상좌 덕운 스님이 문도회의를 통해 내정됐다.

오로지 시비와 분별심으로 바라본 남의 이야기 하듯 세속의 잣대는 쓸모없는 의혹만 키웠다.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17일 해제 때는 "이사회를 한 번 할 때마다 봉변을 당하는 기분이었다"며 감사와 직원의 언행과 자신의 고뇌를 폭로했다. 충격이었다. 거론된 관계자들은 법정 스님 기일까지 묵빈대처 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3월 2일 공식 해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825호 CONTENTS

▶5 현장속으로 국제선센터 차명상



▶7 혜정 스님 입적



▶12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부여 무량사







활인선원 정진대중 하안거·동안거 재가자 모집
삼매체험선수련회 · 단기출가 제5차 참선대중화 선회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예방가능
- 면역성, 노화방,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청소년 대학생 일반

-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안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	4월 23일(30일간)
동안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봄산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 5월	7일(30일간)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4월 8일(금) 오후 3시 입재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안성맞춤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

“총무원 중심 5大 결사는 4無가 문제”

무계파 종회의원 스님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 토론회서 한 목소리

리더십 無 “종단 내부 지행 겸비한 리더십 부재”
소 통 無 “동원된 개혁 성공 사례 역사적 전무”
협 력 無 “중앙종회조차 5대 결사 추진 무감각”
감 동 無 “총무원장 1080배라도 올려야”

총무원이 주도하고 있는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제도권의 자발적 역량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5대 결사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무계파 중앙종회의원들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은 2월 24일 토론회를 열고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총무원 주도의 5대 결사가 일반 대중과의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웅기 총장은 “아래로부터의 역량 조직이 현재 종단 구조에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총무원도 교구본사별 토론을 주문했지만 실제 교구에서의 공의 결집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총무원-교구본사-말사로 이어지는 조계종의 구조와 위에서 아래로 종무행정체계를 통해 지침으로 전파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웅기 총장은 또 현재 조계종 내부에는 지눌 스님이나 요세 스님, 성철 스님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없고, 총무원 밖에도 결사의 내실을 강화해 줄 창의적 세력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아래로부터 대중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총무원장 이하 집행부가 개인적 기부는 물론이고 자신의 사찰부터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기 총장의 발제 이후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퇴휴 스님은 “현재 5대 결사가 행정중심의 동원령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를 봐도 동원된 개혁은 실패했다. 5대 결사를 민족문화수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도 민족문화수호와 5대 결사가 혼재된 문제를 지적했다. 스님은 민족문화수호위원회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100일 회향을 기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내부 성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미 제시된 5대 결사 이외에 우리가 자성하고 쇄신할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총무원 주도, 집행력 담보는 용이
아래로부터 동력 없어 참여 부족

이와 관련해 법안 스님은 사찰의 재정 공개와 스님들의 고급 차량 제한 지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가 시작돼야 국민들이 조계종이 변화하고,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5대 결사보다는 민족문화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용승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총장은 “5대 결사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민족문화수호의 틀을 확산시켜야 불교계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에서는 5대 결사가 총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상이 중앙종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종회 의원들조차 5대 결사를 관망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법안 스님은 “총무원이 결사를 추진하면서 종회 의장단과도 논의가 없다보니 종회의 관심도 떨어진다. 종단 특성상 바닥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종단이 시작했으니 종단이 자세를 낮춰서라도 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 스님은 쇄신과 결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기부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5대 결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정보관리국장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 스님과 지용 스님은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강한 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 스님은 총무원장이 5대 결사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불교계 내부에 먼저 그 의지를 펼쳐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연 스님은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도 대회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있다. 원장 스님이 교구본사를 방문하면서 5대 결사를 위한 1080배라도 한다면 대중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용 스님은 “5대 결사는 미래 불교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느끼는 스님들이 많다. 총무원장이 종운을 걸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5대결사 점검③ 생명결사

‘생명’ 초월해야 ‘생명결사’ 완성

불교 생명관은 생사 초월
중생 고통 보듬는 결사돼야

조계종은 5대 결사 중 하나로 ‘생명결사’를 내걸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명살림 방생/순례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 의식 확대 ▷생명살림을 위한 청규 제정 및 시행을 제시했다.

종단이 ‘환경결사’가 아닌 ‘생명결사’를 제시한 것은 스스로 ‘환경’을 뛰어넘어 이 땅의 ‘생명’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생명결사의 주요내용이나 현재 종단이 검토하고 있는 세부 실천 방안들은 환경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폭을 넓혀 환경문제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9년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당시 총무원은 자승 스님의 방문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각계각층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자승 스님이 뒤늦게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과 달리 천주교는 용산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했다. 생명결사를 하겠다면 중생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생명’의 의미를 ‘삶’에 한정시키는 것은 생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불가의 생명존중은 생멸을 넘어선 것이다.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이 곧 관계성을 존중하는 비폭력이다”라고 말했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도 “생명의 가치를 전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간다면 한국불교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불교만이 주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밝혔다.

종단은 현재 생명결사의 실행계획에 대한 실천안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실천안으로는 가정에서 장바구니 사용안 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생명실천 모범 사찰 선정 등이 논의 중이다.

총무원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것이다. 불교환경의제 21도 다시 검토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공원관리법 개정안 “글쎄…”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불교계 반응 냉담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원관리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불교계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개정안이 불교계의 요구를 일부 담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공원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3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와 사찰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 개선 등 근본적 조항이 빠져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를 놓고 개정안이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김영일 차장은 “불교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불교와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민족문화수호결의 전국에서 이어져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천명한 가운데 남양주 봉선사는 2월 25일 경내에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월초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족문화수호 교구위원회 결성에 이어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2월 24~26일 안성 칠장사에서 진행된 108산사순례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교구본사 외 전국사찰에서도 동참열기가 이어졌다. 이밖에 3월 10일에는 보은 법주사, 17일에는 부산 범어사가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봉선사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사부대중이 1080배를 올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박구원 만평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5세 종정 법담 정각대종사 취임법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지난 2월 22일 봉행한 본 종단 5세 종정 취임법회에 보내주신 제방의 원로대덕스님과 불교계, 종교계, 학계, 재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각계 대표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수희 동참하여 여법한 취임법회를 만들어 준 일붕문도와 종도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우선 지면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게 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종은 제5세 종정 법담 정각 대종사를 중심으로 모든 종도가 일치단결하여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가일층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소종단들과 연계하여 양질의 승려교육을 실시, 본 종단은 물론 군소종단 승려의 질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합동다비장을 설치하여 희망하는 승려는 누구라도 이용 가능하게 하여 재가와는 차별화된 승가의 전통장례문화를 통해 승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본 종단의 미래 비젼은 본 종은 물론 군소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여 한국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종단 5세 종정 취임법회에 보내주신 제방의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승가의 법체강령을 기원하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을 삼보전에 합장 · 축원 올립니다.

불기2555년 2월 좋은 날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일동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142-88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440-27번지 엄지빌딩 3층 ☎02)998-8161 www.ilbung.org

‘무소유’만 좇는 거지가 되려는가


덕조 스님


덕현 스님


덕운 스님

덕현 스님은 이사취임 직후인 6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사와 주지직을 힘들어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를 많이 걱정하셨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 길상사나 맑고향기롭게의 구심력 흔들리고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어 스님은 “맑고향기롭게는 시작 직후 법정 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었다”고 설명했다. 며칠 후 길상사에서 삼소회 음악회가 있던 날 신문을 들고 맑고향기롭게 사무실을 찾았다. 맑고향기롭게에서 10여 년간 활동했다는 한 활동가는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스님이 정말 맑고향기롭게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냐? 그것을 그대로 쓰는 기자가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는 물론 덕현 스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내포돼 있었다.

사람들은 前 주지 덕조 스님이 2000년부터 이뤄놓은 길상사에 2009년 3월 새로 취임한 덕현 스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당시 이사직을 맡았던 관계자에 따르면 덕현 스님에게 대들거나 원망하고, 길상사를 떠나는 신도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길상사나 맑고향기롭게에서 주요직을 맡은 이도 있었다. 덕현 스님은 떠나면서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 적지 않은 반대,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려 왔다”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정제되지 않은 욕심과 야망, 시기심, 그리고 무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고충과 충심을 헤아리지 않고 그 결정과 처신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매도하는 말들, 그 뒤에 숨은 아상(我相)들이었다”고 말했다. 외로운 분투였다. 스님은 소식지에서 종종 “자신이 없다”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선임을 전후해 나는 길상사 주지가 됐을 때 못지않게 몹시 마음이 무겁고 스스로에 대해 깊은 연민과 비애감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심경은 슬프고 우울하다”는 등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맑고향기롭게 윤청광 이사는 “맑고향기롭게에 내부적인 소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스님의 글 그대로 보면 될 것”이라며 “NGO로서 본 역할에 충실하고 법정 스님의 뜻과 정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태연한 입장 표명만 했다. 덕현 스님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도 많았지만 덕현 스님은 맑고향기롭게 이사회에서 만큼은 ‘왕따’였다.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덕현 스님은 스스로 ‘공격당했다’ 표현했다. 스님은 17일 해제법문에서 “이사회를 한 번 할 때마다 봉변을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구심력을 갖기 위해 법정 스님을 맑고향기롭게의 영구 회주로 추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사회나 대의원회는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종교를 초월한 시민 모임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면 정체성을 흐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사회에서는 덕현 스님의 사직서를 두고도 설왕설래 했었다. 이 과정에서 덕현 스님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걸망을 지고 떠났다.

덕현 스님의 발언과 행동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법정 스님 1주기가 끝나고 해도 될 일이었다. 동안거 해제 법문의 내용으로 부적절 하다고 볼 수 도 있다. 이사회 측근의 “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 인민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법정 스님은 물론 불교계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다” 는 반응도 일리가 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것이 아니다. 물론 신도들의 것도 아니고 이사들의 것도 법정 스님의 상좌들의 것도 아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는 이욕과 실리에 사라졌다.

법정 스님의 후광이 무섭게 느껴진다. 스님이 작은 말빚까지도 갚고 가려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법정 스님의 상좌라는 이유로 엉겹결에 유명세를 타 번거로운 삶을 사는 출가수행자들의 고초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불일암에서 주석하는 덕조 스님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보러 오는 것이고,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스님을 모시는 것이 기에 불일암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덕현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스승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분부를 거역할 수 없어 그동안 여기 있었다”고 했다. 불법을 배우러 절에 가기보다 불상에 기도를 하기 위해 가는 무지몽매한 중생처럼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상좌에게 법정 스님의 향기를 느끼려 한 것은 아닌지. 아니 그들에게 법정 스님과 같은 삶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진정 ‘나’ 다운 삶 없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만 좇는 거지가 되는 일은 순간이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대토론회 특별기고

“그래도 결국은 정치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그것이다. 국가란 정부와 정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사회이다. 시장은 자본주의적 기업이 대표한다. 시민사회의 조직적 실체로서는 비영리 영역의 단체다. 우리가 국가권력과 종교의 관계를 다룰 때는 이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시스템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삼권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 원칙 아래의 자유민주 정치체제에서 대부분 의회(국회) 다음이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다. 현대사회에서 의회정치는 경제사회인 시장, 생활세계인 시민사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 문제로 가보자.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 문제는 서구에서 근대적 정치체제 형성의 근본문제 중 하나였다. 로크나 루소 같은 이들의 ‘정부론’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에 있어서도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은 ‘종교와 국가 간에 분리의 벽 원칙(Wall of Separation Doctrine)과 비선호주의 원칙(Non-Preference Doctrine)’으로 해석된다. 요지는 정치(통치자)는 ‘저승의 문제(영혼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와 정치 사이의 분리의 벽은 변경 불가능한 고정적 원칙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분리의 벽’의 수준을 정하는데 어떤 보편적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의제로 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보편적 지표를 둘러싼 정치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는 결정될 것이다. 다시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된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은 종교 본연의 문제 즉 ‘믿음과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질서 혹은 정치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바뀐다. 종교인 혹은 종교 교단이 정치권력과의 관계문제를 논할 때에 현실에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는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는 한다.

또한 ‘민족문화수호론’은 크게 볼 때 지엽적인 의제이다. 근대국가가 대체로 민족을 근간으로 한 국가(정부)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국가(정부)다. 민족이 특수성이라면 ‘민주공화국’은 보편성이다. 민주공화국의 체제, 즉 정치질서 유지 차원의 문제로 종교적 배타성과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종교의 극단적인 종교적 배타성이나 정부의 특정종교 선호주의는 민주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100%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사회적 의제로 토론되어야 한다. 2008년도 범불교대회의 명칭에 왜 ‘헌법수호’를 명시하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통의 담지자라는 목전의 기득권만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유지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참답게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남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대토론회, 인터넷 토론 활성화 과제 남겨

제2차 대토론회 토론자와 네티즌… “대중 의견 상시 수렴해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2월 23일 개최한 제2차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총체적인 주제 설정으로 발제 위주가 된 영향으로 토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양상이었다. 반면 지난 토론회에 대한 비판을 수렴해 현장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은 승가공동체의 수행가풍 확립과 박세일 교수의 정치참여 절제 발언으로 전문성을 지닌 재가자 활용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화두로 전개됐다.

박세일 교수는 “수행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세속적인 일은 재가자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부대중이 장점이 다르다. 현대적 경영관리, 교육관리가 필요하다면 전문성 가진 신도들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출가자 뿐 아니라 다 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해 불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와 교단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불교교단이 국가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이 확립해야 한다. 종헌종법에 자기 원칙 담아 교단이 사회 국가관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보호와 관련한 불교계 행보에 대해서는 신뢰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지난 1회 대토론회에는 60여 개에 달했던 댓글이 17개에 불과했다.

댓글 내용도 토론회 주제인 ‘교단과 국가’에 대한 의견 보다는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제에 대한 평이 주를 이루었다.

“한 달에 한번 세미나를 하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다” “조계종 홈페이지부터 개선해 대중 의견을 항시 수렴해 달라” “언제까지 불교만 참아야 하나. 법을 만들어서 종교 차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등이 올라왔다.

노덕현 · 천진영 기자

‘명진 VS 진화’ 봉은사 내 갈등 심화

불만 고조된 신도들 성명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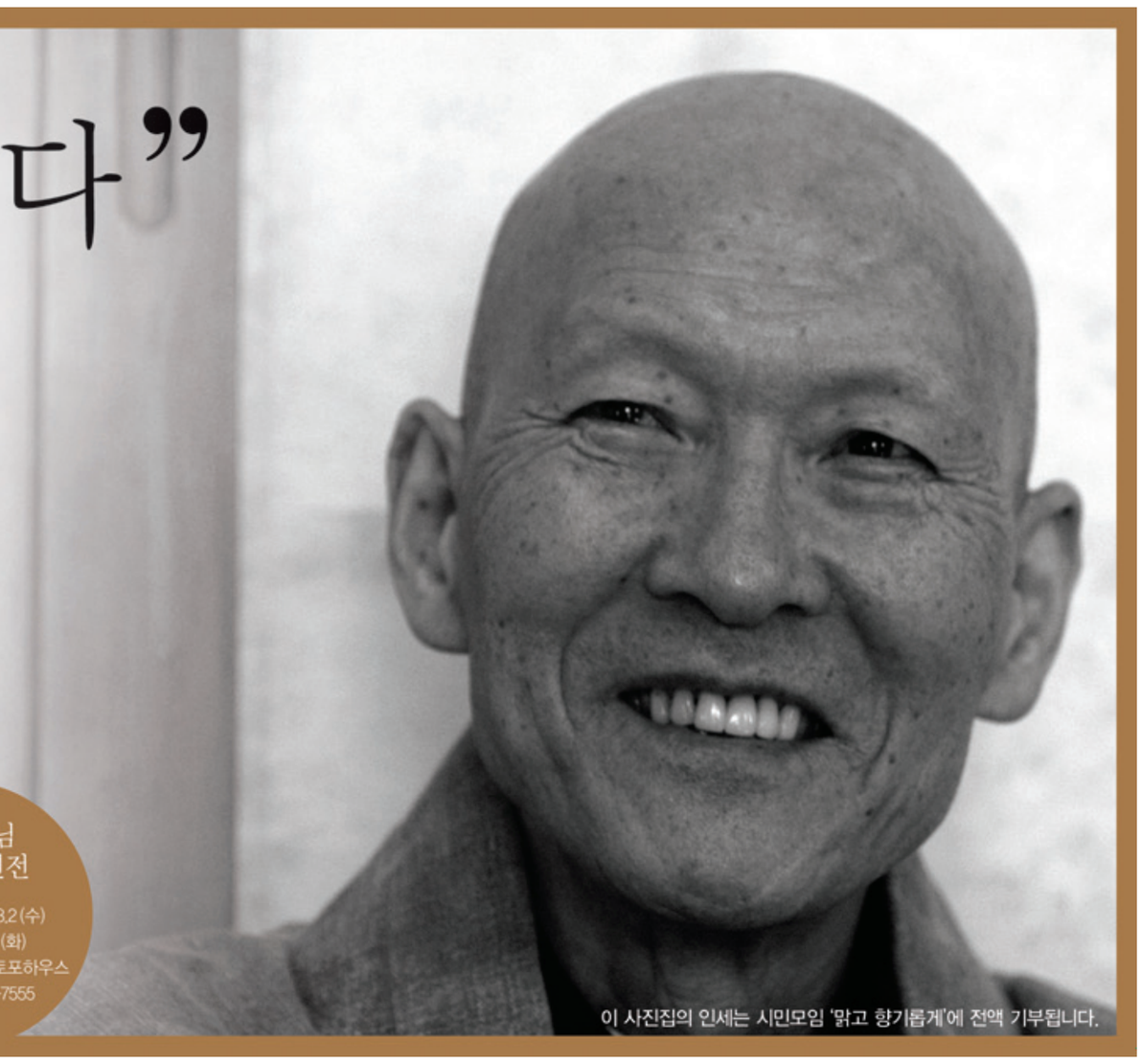
봉은사가 직영사찰로 지정되면서 생긴 갈등이 증폭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최근 홈페이지 내 前 주지 명진 스님의 홈페이지격인 지대방을 삭제했다. 신도들의 항의가 일자 홈페이지를 다시 오픈했다.

다음 카페 ‘명진 스님을 사랑하는 불교네티즌연대’는 명진 스님의 복귀와 직영사찰 이전 · 이후의 봉은사의 재정 상태를 공개를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봉은사가 소말리아 해적 소탕하는 작전 하듯 명진 스님의 흔적을 없애려 한다”며 분노했다.

이번 사태는 봉은사가 직영사찰이 된 이후 불거진 갈등이 명진 스님을 따르던 종무원들이 직위해제 된 인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천진영 기자

“스님, 보고 싶습니다”



{ 형형색색의 만장도 꽃상여도 없이
‘비구 법정’ 단 두 마디가 적힌 종이 위패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가르침을 일깨워주신 법정 스님. }



사진집 + 법문 동영상 DVD 포함 값 48,000원 | 동아일보사

입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만든 최초이자 마지막 사진집.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법정 스님의 모습들을 통해
평생 걸식하는 수행자, 비구로 살기 원했던
당신의 무소유 정신을 되새긴다.

사진집의 모든 사진은 한 장 한 장 액자에 넣어
법정 스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스님
추모 사진전
전시 일시 : 2011.3.2 (수)
오후 5시~3.8 (화)
전시 장소 : 인사동 토포하우스
문의 : 02-734-7555

근승량 헌정 사진집 비구, 법정 法頂

이 사진집은 서점(온 ·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집의 인세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 전액 기부됩니다.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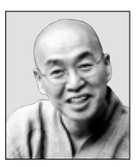
인드라망 제28기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제28기 불교귀농학교를 진행한다.



상도선원 제7기 마음수행학교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3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4주에 걸쳐 마음수행학교를 개강한다. (02)815-3391



법륜 스님 포스코청암상 수상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3월 22일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청암재단이 수여하는 청암봉사상을 수상한다.



명상연구원 무료공개강좌

명상연구원 원장 현종 스님은 3월 5일 명상연구원 남산 수련원에서 명상뇌과학을 주제로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법사대 제19회 졸업식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은 2월 1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9회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개최했다.



덕우 스님 조동종 총무원장 재임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3월 2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대한불교조동종 제 9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허 운 스님, 신도시 종책 특보 임명



용인 서봉사 주지 허운 스님은 2월 22일 조계종 신도시 종책 특보로 임명됐다. 허운 스님은 1988년 9월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11월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1992년 동국대 졸업하고 송광사 일산분원 정혜사 주지를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호압사 주지 정 묵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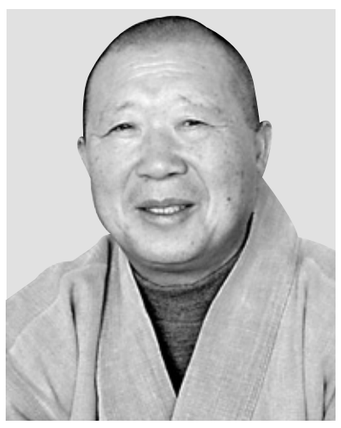


서울 호압사 주지에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자승 스님은 2월 22일 임명식에서 "직할교구 사찰 주지는 인사고과평가와 종단 수익사업 기여 등 교구 말사 주지보다 훨씬 힘들다. 하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미타 15주년, 중앙과 지역협회 연계 강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회장 재임 도 후 스님… "넉넉한 품성 함양할 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에 도후 스님(고성 건봉사 주지)이 제5대 회장으로 재임됐다. 파라미타는 2월 19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정기총회 및 지도자 대회를 봉행하고 도후 스님을 재선임했다.

도후 스님은 "인천, 강원, 전남, 충남협회 발족과 함께 지역 조직활성화를 위한 중앙 지원 확대, 국제교류협력 활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지나온 성과는 계승해 나가겠다"고 재임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이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친구도 만나고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우고 인내와 협동심도 함께 키워 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해외봉사활동, 사찰 및 문화재 모니터링 등 단체활동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넉넉한 품성으로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도후 스님은 "더 나은 파라미타에 대한 설계도를 내 놓아야 하는데 역량과 열정 등 여러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더 큰 원력을 가진 젊은 회장이 선출되기를 바랐었다"며 재임에 대한 부담감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스님은 "파라미타를 통해 청소년기에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여느 학생들보다 불교에 관심을 갖는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해외 봉사에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흡족해 하고 다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내비쳤다.

파라미타는 올해를 '자비실천 생활화'의 해로 정하고, ▷중앙과 지역협회의 균형발전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한 발전 ▷파라미타 인재상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파라미타는 경기북부, 제주협회 결성을 추진하고 분회조직 10% 확대, 회원증대 15% 증대 등 회원 증대 및 조직 발전을 꾀한다.

파라미타는 국제교류 확대에 매진한다. 파라미타는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 중국청년교류센터 등과 협약해 한 · 중 · 일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및 미주 문화탐방 및 교포청소년 교류도 적극 추진한다. 또 국제협력봉사활동의 정례화 및 유관단체 협력 강화한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규분회 및 신입회원 가입시 문화재 지킴이 가입, 1분회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적극 유도한다.

파라미타는 15주년을 맞아 7월 연합캠프에서 전국 지도자와 화원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8월 27일(예정)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교리경시대회를 경시대회 날 다양한 불교문화체험의 '청소년불교문화축제(가)'도 마련한다. 행사에는 청소년이 직접운영하는 벼룩시장, 단체 · 개인별 장기자랑대회, 시나리오 공모전, 단편영화제 등을 실시한다.

한편 총회에서는 임기만료 이사인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전정도 성진지오텍 대표이사를 대신해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백명숙 파라미타 부산협회장이 신규이사가 됐다. 또 임기 말료였던 옥천암 주지 정범 스님은 재임했다. 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임기 4년이며 감사임기는 2년이다. **이상언 기자**

1968년 출가해 1974년 충북 법주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건봉사 · 백담사 · 신흥사 주지 역임.

"경기도 복지와 불교발전 이끌터"

추 교 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신임 협회장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경기도와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교선(사진)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의 회장으로 2월 15일 취임했다.

추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5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그의 공약은 ▷회원 기관별 편차 해소 및 정책 계발 ▷권역별 회장직 신설, 실질적 의사 소통 강화 ▷경기도 유관 직능단체 교류 활성화 및 화합 ▷SNS 활용한 중간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소속감 강화 ▷위탁제도, 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현실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이다.

불교계에서는 지난 해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선출에 이어 추교선 회장이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자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회장은 종단을 초월한 경기도 불교 종합복지관들의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 경기도 불교복지의 전체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눔과 자비는 불교사회복지의 특징입니다. 지역 복지 발전과 부처님의 가르침 전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국민대 ·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前 강사, 과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비 온 뒤 땅 굳듯이 발전 위해 총력"

김 명 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신임 총장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서울불대가 더 기반 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인화(人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1일 보문학원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이 발전하는 10년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총장은 "현재 서울불대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수행에 정진해 온 원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불교, 명상, 상담심리, 뇌과학은 물론 심신통합치유, 요가치료, 미술치료, 불교상담 그리고 자아초월상담 등 정신세계의 최첨단 학문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교가 바로 서울불대"라며 자부심을 표했다.



서 불 대 는 김 총장 체제 하에 각 학문간 협동과정과 우수한 교수 확보, 원생 목소리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또 법인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교사(校舍) 확충에도 진력한다.

김 총장은 "내년 9월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10년을 위해 모두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노덕현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전공교수, 집단상담학회장 역임. 고려대 철학과 졸업, 고려대 심리학과(임상심리학 석사), 서울대병원 정신과(임상심리학연수원), 부산대 교육학과 상담심리학 박사.

연등장학회 제 6회 장학금 전달식



재단법인 연등장학회(이사장 법등)는 1월 29일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연등장학회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과 2학년 최성열 군 등 고등학생과 대학생 49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국대 의료원 기관장 인사

동국대 의료원은 3월 1일자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부의료원장 겸 일산행정처장 김영길 ▶전략경영실장 채석래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임현술 ▶한의과대학장 김기욱 ▶경주병원장 이경섭 ▶일산불교병원장 이진호 ▶경주한방병원장 김경호 ▶분당한방병원장 신길조 ▶일산불교한방병원장 구병수 ▶경주행정처장 최진식

(2011년 3월 1일자)

새로 찾은 희망 생명나눔, 신장이식 지원

"다른 아이들처럼 축구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고 싶어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이던 대구의 한 어린이가 불교계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본부(본부장 박종명)는 2월 14일 영남대 의료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성빈 군(13세, 금포초등학교 6학년)에게 500만원을 지원했다.

박종명 본부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가혹한 고통에 시달리는 성빈이가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9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1년과정 – 매주 목요일)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목요일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3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국제선센터 차명상 강좌





“차 한잔에 사랑, 행복, 기쁨이 가득합니다”

며칠 째 햇살이 포근하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8번 출구를 나서자 빌딩 숲이 펼쳐졌다. 빌딩 숲 사이에도 봄 햇살이 살갑게 안겨있었다. 빌딩과 아파트, 대형 교회들이 빽빽한 길을 따라 10여 분 걷다보니 우뚝 선 목탑형식의 국제선센터가 눈에 꽂힌다.

2월 22일 오전 11시 지하 1층 문화관에서 음악이 고요히 흘러 나왔다. 불교교리강좌를 듣는 옆 강의실과는 달리, 한결 여유를 부리는 강의실로 들어섰다.

초의명상선원 대표 지장 스님이 30여 수강생들과 손 체조가 한창이다.

“기지개를 폅니다. 뒤로 쭉~. 허리와 가슴을 활짝 폅니다. 연속적으로 기지개를 편다는 생각으로~.”

15분 몸을 풀고 나자 ‘마음 푸는 시간’이 이어졌다.

“의자에 편히 앉으시고. 눈을 감고,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가장 행복해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나로부터 모든 고통이 없어지기를, 나로부터 모든 원한이 사라지기를…”

매주 수요일 11시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에서 진행되는 불교문화강좌 차 명상 두 번째 강좌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40여 분간 스트레칭과 자비명상으로 시작한다. 몸과 마음을 풀고 나자 지장 스님은 몸과 마음을 푸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명상수행은 몸과 마음이 편안 불편한 상태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명상 효과가 없으니 몸을 항상 풀어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차명상 수업은 지장 스님이 준비한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시작됐다. 차 한 잔을 먹는데 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들고 있던 차를 1~10까지 세면서 가슴 높이까지 올리십시오. 찻잔이 가슴 높이까지 와 있습니다. 사랑, 행복, 기쁨을 떠올립니다. 다시 마음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세며 얼굴로 가져오면서 차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조심스럽게 차를 한번 삼킵니다. 들고 있는 찻잔 들려오는 소리 사랑 행복 기쁨. 이제 다시 두 번째 차를 마셔봅니다. 사랑과 행복의 기운이 몸속에 충만 됐음을 생각하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느껴 보십시오. 세 번째 모금을 먹고 사랑과 행복의 기운으로 마음과 몸이 다 밝고 편안해 집니다. 다시 숫자를 세면서 내려놓으십시오.”

차명상은 단순히 차를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명상’ 이었다.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행복의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밝고 가볍게 했다. 차 명상을 마치고는 다시 이론 강의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강의는 실례를 들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가톨릭 신자인 홍성란(49) 씨는 “평소 명상, 묵상, 마음 다스리는 법에 관심이 많아 혼자서 해 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것 같다. 강의도 종교적인 색채가 없고, 강의 장소가 현대화된 사찰이라는 부분도 이색적이다”고 말했다.

강좌는 선센터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본교육과 리더십 강좌를 모두 들었다는 이진애(51) 장명옥(48) 불자는 “평소 절에만 다녔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차 명상을 비롯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들으며 나의 삶을 깨우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좀 더 자비와 지혜로 다가서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차 명상 초급과정은 12강좌로 구성됐다. 초급과정은 명상의 목적과 차 명상의 필요성, 명상과 치유, 명상의 원리와 과정, 차명상 기초 실습, 명상의 패턴 변화와 효율성, 차명상과 차치유, 명상 수행법의 선택과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 진행 중인 강좌는 차명상치유사 과정 중 초급으로 국제선센터는 앞으로 중・고급과정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국제선센터에서는 영화 속 에피소드로 배우는 불교이야기, 초심자교육, 불교기본교육, 불교멘토쉽교육 등이 진행된다. 특히 센터 7층에 위치한 금차선원에서는 참선 수행, 내・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2)2650-2214 이상언 기자



차명상에 앞서 몸풀기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

지장 스님이 말하는 차명상법

차명상은 반야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면 집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반야바라밀 실천법입니다. 수행과 생활이 따로 있으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걷고 청소를 하면서도 반야바라밀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먹고 안 움직입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있죠. 생활습관이 스스로 만들어가기보다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TV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 처럼 편안한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감각을 이용하고 몸을 움직이는 차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 중심의 삶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변화와 성공을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지 머리와 가슴으로 알 뿐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고 알면 필요한 마음은 일으키고 불필요한 마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에 영향 받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유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더 행복,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분명하게 알고 전략을 세워 이뤄가야 합니다.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차명상이란 차 생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신 수행의 요소와 명상의 수행체계를 접목한 것입니다. 차 생활의 정신 수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상수행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차 생활 및 일상 행위속에서 할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면서 변화를 꾀하십시오.

차명상은 절제, 집중, 통찰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차 생활을 통해 자각력, 집중력, 정신력, 믿음, 지혜의 힘이 계발됩니다. 자신을 사실적으로 보고 아는 힘과 지혜가 생성되면 자신이 상생공존하고 있다는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한 만큼 인식의 변화가 오며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곧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의 목적이 생기며, 삶의 목적 성취를 위한 올바른 노력을 통해 자기 절제와 통찰 지혜가 성숙합니다. 내부적인 느낌이나 감정, 생각, 주변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덜 받으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중정(中正)의 경지, 지혜로운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상을 인지하는 방법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마음의 상태도 변합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과 마음을 알고 접근하겠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야겠다’ 고 하는 것과 ‘마음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구나’ 하며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행동의 결과는 다릅니다.

차를 이용한 명상은 오감을 두루 활용하며 동정(動靜)의 조화를 이룬 행위로 이뤄져 있습니다. 차의 약리적 기능, 정서적 안정감 등 색과 향, 차를 우리는 동작은 테라피 효과가 있습니다. 차 말고도 어떤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운동 등 일상생활 그대로 자연스럽게 명상화 할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불교식 가정제사 표준화 가능할까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이 1년 동안 연구해 발간 할 예정인 〈불교 상 제례 안내서〉에 담긴 '불교식 가정제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44차 포교종책연찬회서 '불교식 제사' 표준화 논의

"유가식 제사의 흡수할 부분은 과감히 흡수하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불교식 가정제사의 표준화를 이루는 길이다."(이송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원장),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불자들의 실제 생활에서 정착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의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이성수 불교신문 차장)

2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불교식 가정 제사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연 제44회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로 일어나는 가정 제사에 대한 갈등 문제의 재정립이 시급한 시점에서 불교식 가정제사를 표준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불교식 가정제사의 정립을 위한 시론'을 발표한 구미래 불교 상제례문화연구위원은 "불교와 제사의 문제는 종단 내에서도 아직까지 합일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선 '불교제사'라고 하면 사찰에 의뢰해 재(齋)의 형식으로 지내는 것과, 가정에서 지내는 불교식 제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구미래 위원은 "'불교식 가정제사'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제사'라는 용어를 불교와 연결 짓는 것 자체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용어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교제사의 의미에 대해 공론화된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구 위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불교식 가정제사를 '고인에 대한 추모와 공경'뿐만 아니라 '천도'의 의미로 보는가 하면 '추모와 조상공양'의 의미로 보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불교식 가정제사 시연회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성운 한글표준법요집 편찬위원은 "불교식 제사가 사찰에서 봉행하는 시식을 짜깁기 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오늘 시연된 가정 제사 의궤는 같지도 않고 비 불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천도'라는 개념을 추천 또는 추선이라는 용어와 사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송자 불교생활의례문화원장은 "이번 불교식 가정제사는 포교원에서 2006년 출판안 〈한글통일법요집 천도 · 다비의식집〉에 수록된 의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식은 목탁과 죽비가 아닌 읽는 식으로도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불교의례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교육과 디지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수 불교신문 차장은 "제사 문제로 핍박을 받은바 있는 천주교가 교단 차원에서 제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그 이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불교 또한 종단 차원의 입장 정리와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어 "불자들의 가정에서 불교의례가 실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발휘하는 스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홍보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나은 기자

외국인 위한 템플스테이 앱 개발

불교문화사업단, 홍보용 캐릭터도 선보여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위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은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정보는 물론 사찰 창건설화 및 주변 관광지 갤러리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동영상 및 사진, 사찰 기본 예절 등을 볼 수 있도록 'Templestay AP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앱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앱을 설치해 3G와 와이파이(WiFi)망 접속이 어려운 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2011년 캐릭터(사진)를 개발했다. 캐릭터는 불교문화 상품 및 홍보용품 디자인으로 활용해 템플스테이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묵기법을 사용해 한국전통의 느낌을 살린 캐릭터는 동자승이 발우공양, 참선, 염주만들기, 합장, 사물(四物)치기 등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밖에도 목탁, 죽비, 108염주, 단주, 목어, 범종, 발우기, 풍경 등의 캐릭터도 새롭게 선보였다. 개발된 캐릭터는 배너 및 안내물, 명찰, 각종 서식류 등에 사용된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사찰에서 활용할 파워포인트 템플릿, 홍보용 리플렛 포멧 등에도 공통 디자인 가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지역과 소통' · '일자리 창출' 주력

서울·종로 노인복지관 신년계획

신(新)노인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11년 운영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인복지관을 통해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등 지역사회 누구라도 오고 싶은 열린 복지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은 평균 연령 69세의 전문어르신밴드인 '상상밴드'를 통해 종로구 주민들과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인문학 아카데미 '종로를 거닐며 나를 찾다'를 개설해 종로의 숨은 명소를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으로 융합된 조직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멀티 사회복지 실천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센터는 기획사업부를 개설해 후원기업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자원연계팀을 강화해 기업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어르신들이 노년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이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책다실-삼가연정'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주년을 맞이해 오는 4월 어르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1 · 3세대가 함께하는 걷기대회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발자취를 살피는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고 10주년 기념 자료집 등을 발간한다. 이나은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 전 조계사에서 기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밝은 구슬' 이 상 희 팀장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이웃들이 많다.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는 매주 우리시대 '라후라존자'를 찾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들어본다.



"저 분들 중 전생의 제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업장소멸과 부처님 가르침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에서 2002년부터 9년 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상희 팀장(67 · 사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봉사를 하는 순간도, 봉사를 하며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이다.

이 팀장은 2004년부터는 봉사활동 동아리 '밝은 구슬'을 만들어 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챙겨드리는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총 13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밝은 구슬'은 대부분 7~8년 이상 된 베테랑들이다. 개인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인연'을 만나 함께하는 팀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상희 팀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자주 다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가까워졌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하기 전에도 다니던 사찰의 일을 도우며 '봉사'와 가까워졌다.

"일을 돕던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봉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봉사는 육바라밀과도 맞닿아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큰 우환이 없는 것도 다 봉사를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아요."

이상희 팀장은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날이면 집에서 조금 일찍 나온다. 봉사활동 전에 센터 인근에 위치한 조계사에 들러 기도를 올리고 금강경을 읽기 위해서다. 평소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다는 이 팀장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3배라도 올릴 것을 권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봉사활동은 멈추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봉사는 이제 제 삶의 이유이자 낙입니다.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몇 시간 안에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일이 봉사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봉사활동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어르신 대상의 봉사활동은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더욱 신경 써야한다.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에게는 봉사하려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절에 들려 기도만 올리면서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때도 이상희 팀장은 봉사를 권한다. 봉사를 통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기도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몸이 아파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는 이제 그와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봉사가 기도고, 봉사가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찾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월 3일 미래복지포럼 개최

북한이탈주민 입국 2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3월 3일 2시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원'을 주제로 미래복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김학성 부장(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나선다. 이나은 기자

"친견용 명품(名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 龜 命 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第1券 甲子旬)
(甲子日 · 乙丑日 · 丙寅日 · 丁卯日 · 戊辰日 · 己巳日 · 庚午日 · 辛未日 · 壬申日 · 癸酉日)
鼓卜子 曉史 共著
龜玉子 乙山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www.taotemple.net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조계종 원로의원 혜 정 스님 원적

禪·敎·律 통달했던 선지식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스님(법주사 회주, 前 총무원장)이 2월 22일 괴산 각연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9세, 세납 79세.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26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혜정 스님은 1933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했다. 195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67년 경남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제2대 중앙종회의원, 법주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거쳐 1977년 조계종 제14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5월 31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수지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cetana@gmail.com

혜정 스님 열반송

사대육식본래공(四大六識本來空)
육근육진희롱극(六根六塵戱弄劇)
천희만락일춘몽(千喜萬樂一春夢)
대휴관처견성구(大休觀處見性具)

지수화풍 사대와 여섯 감각기관의 모든 인식이 본래 공하니 그 인식들은 여섯 감각기관과 그 대상사이에서 일어나는 희롱극에 불과하다.

밖의 경계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기는 것들에 빠지지 말라. 모두가 한 토막의 봄꿈일 뿐이다.

이 육신의 헐떡거림을 지우고 유정무정의 모든 생멸을 평등하게 관해 보라. 내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부처와 지옥을 보살도의 발원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되리라.



혜정 스님 주요 이력

1933년 전북 정읍 출생
1953년 수덕사에서 남훈 스님을 계사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5년 조계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
1968년 제2대 중앙종회의원
1976년 법주사 주지
1977년 제14대 총무원장
1992년 법주사 총지선원 율주
2002년 법주사 총지선원 회주
2004년 5월 31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 수지
2005년 법계위원장

명문사학 기반 다질 터

동국대 김 희 옥 총장 취임… 등록금 인상률 2.8%로



김희옥 前 헌법재판관이 2월 22일 동국대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국가족의 염원을 받들어 임기 4년 동안 동국대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 강화와 연구진흥,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엘리트를 육성하는 명문사학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동국대 중흥을 위한 '제2건학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국 사찰과 2000만 불자, 뜻있는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김희옥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급변하는 교육과 연구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좋은 화합의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김희옥 총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남다른 비전과 리더십을 갖추고 친화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분이다. 동국대가 김 총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동국대 이사),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동국대 이사), 이연택 동국대 총동문회장,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헌법재판소 김종대 · 조대현 재판관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김희옥 총장은 23일 학생대표들을 면담한 후 등록금 인상률을 4.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조동섭 기자

김희옥 총장은… 1972년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중앙승가대 학위 수여식 성료

졸업생 99명, 박사 2명, 석사 9명

중앙승가대는 2월 24일 본관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제29회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박사학위 2명, 석사학위 9명, 학부 졸업생 88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전체 수석은 현송 스님(박사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전공)이, 학부 수석은 동선 스님(불교학과 전공)이 차지했다. 승가대 총장상은 보운 스님(석사과정 불교문화재학전공)과 학부 차석인 선중 스님이 받았다.

현송 스님은 '삼국유사로 신라정토신앙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의 논문은 〈삼국유사〉 7편의 설화와 3편의 향가에 나타난 우리 고대 민중의 정토신앙관을 추출하고 정토교학의 이론과 대비하면서 신앙성을 연구했다. 정우 스님은 '불전(佛典) 한글 번역과 용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나은 기자

은해사 승가대학원 마지막 졸업식

스님 9명 삼장강사 학위 수여

조계종 은해사 승가대학원이 2월 24일 마지막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해사 승가대학원 경내 대웅전에서 치러졌다. 이날 제5기 졸업식에는 3년 과정을 이수한 9명의 스님들이 삼장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응 스님은 졸업생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교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종단 교육발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돈관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문 수행에 전념해온 졸업생들을 더 열심히 뒷바라지 못해 아쉽다"면서 "도제양성의 기틀을 다지는데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해사 승가대학원은 지난 1996년 처음 문을 연 뒤 48명의 강백을 배출했지만, 종단 전문교육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상태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나은 기자의 지금 부루나에서는

'오 주여' 외치더니 말뚝을…

한국 기독교인 티베트 성지에 '성경문구' 말뚝 박아 논란



한국 기독교인이 티베트 성지에 성경 글귀가 적힌 말뚝(사진)을 박았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한 네티즌은 2월 15일 '중국 시아허에서의 기독교인의 말뚝 만행'이라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네티즌에 따르면 문제의 장소인 중국 간쑤(甘肅)성 샤허(夏河)에 위치한 티베트불교 사원 라부렁사(拉卜楞寺)서 남자 1명, 여자 2명의 한국인 일행을 만나 티베트 청소년의 가이드를 받던 도중, 이들이 오체투지를 하는 순례자들을 보며 '오 주여'를 연신 외치더니 남자일행이 배낭에서 말뚝을 꺼내 주위에 박기 시작했다는 것.

네티즌이 공개한 말뚝 사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적혀있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도 기독교인들의 만행(蠻行)에 대해 비판했다.

S씨는 "기독교는 다량의 선교 인력이 배출된 이래, 해외선교, 국내 외국인 선교까지 다 해봤는데 이제 포화상태라 저 짓거리를 하는데 저건 기독교 신앙인들로부터 지적 받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B씨는 "미신, 광신, 정신… 대개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다. 그들은 소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이 광신(狂信)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포악하고 잔인하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스승의 몫이다"고 했다.

티베트 말뚝 사건을 기독교 대 불교의 갈등을 넘어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판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A씨는 "기독교 대 불교의 갈등 보다는 인류 문화를 훼손하는 야만 행위라는 여론을 만들고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릴라같은 그들의 폭력에 매번 불교계에서 각개전투를 치르다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들이 쳐 놓은 진흙구덩이에서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며 뒹굴게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이슬람 채권법 도입하면 MB하야"

조용기 목사 등 개신교 반대 표명 종자연, "경제조차 신앙잣대로?"

이슬람 채권 수쿠크 발행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행태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수쿠크 발행을 통해 외환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여 국내경제성장을 꾀하겠다며 '이슬람 채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가 특정종교의 포교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한국장로교총연합도 테러자금 유입을 우려하고 나섰다.

더구나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는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됐다. 청와대는 조 목사의 발언을 놓고 대책회의까지 열며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조 목사는 2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한국기독교회협의회 회장 취임 감사예배의 축사에서 "이슬람 지하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종자연은 24일 '이젠 경제조차 신앙의 잣대로 단죄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종자연은 "자카트는 이슬람 국가 및 이슬람 국가와 교류하는 모든 경제행위에 부가되는 일종의 사회기부금이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계는 마치 테러단체의 지원금인양 사실을 호도하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공동체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몰염치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2011년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8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19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자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1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법화사상,대승불교,화엄사상, 정토사상,밀교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정병조교수(금강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정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2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불교미술,선학의이해,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근본불교,반야사상,유식사상,불교상담론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동산대),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180명 : 목요반(오후2시), 토요반(오후 6시), 통신반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20명)	천자문역해, 한문해석 금강경(1),(2), 중국고전(장자, 유마경(1), 초발심자경문, 삼국유사 등	이윤숙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제다실행, 육대행다다류, 차의 미학, 티테이블세팅,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홍차, 차명상	박희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0일(매주-목) 오전 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3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30명)	불교 포교론(2)	활 안 스 님	3월 7일(매주-월) 오후 7시
	팔천송반야경(1)	김형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7시
	초기불교 수증론(3)	최봉수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5시
불교다도학과(2년과정 20명)	다경, 다부, 대관다론, 다신전, 동다송	김진숙교수	3월 15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상주권공(이론,실습) 강좌, 한글의식기본,예불의식, 왕생의식 실습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3월 5일(매주-토) 오후 2시
범패의식반(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관음시식, 상용영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나비춤 등)	인각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3시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고불총림 백양사 율원 연구생 모집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다음과 같이 율원 연구생을 모집합니다.

1. 율원 교육과정
① 전 3학기 – 남산도선율사 사분율행사초(기본서), 사분율행사초자지기(참고서)
② 후 3학기 – 오분율, 십송율, 해탈율, 마하승기율

2. 연구생 희망자 자격요건
율원 졸업자로서 율학연찬을 희망하는 자

3. 모집인원 : **4**명

4. 자격요건
–.율원 졸업자
–.한국불교 중흥의 뜻을 품고 있는 자

4.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 ② 율원 졸업증명서

5. 전형일자
3월 **30**일 오후 **3**시에 백양사 종무소에서 실시함

◐ 문의 및 연락처 : **070-4186-7680** (오후 3시 ~ 6시)

불기 2555년 2월 22일



고불총림 백 양 사 주지 시몽

대한불교진흥원 화요 열린 강좌 김범진(명상코칭가)의 '통찰력의 비밀, 스티브 잡스와 선(禪)'



IT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티브 잡스(56). 애플의 최고경영자로 있는 그는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실리콘 밸리의 아이콘' 으로 떠올랐다.

그러다 보니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무 비결, 경영마인드 등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을 다룬 책들이 적잖이 나왔다.

2010년 10월 출간된 〈스티브 잡스 아이마인드〉(이상미디어 刊)의 저자이자 명상코칭가인 김범진은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는 그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만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혁신, 완벽주의, 도전정신, 탁월한 예술가적 안목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보이지 않는 통찰력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이란 바로 내면의 풍경, 마음의 힘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선(禪)사상에 심취했고 명상을 즐기며 코분 치노라는 일본의 선승을 평생 멘토로 존경했다. 저자 김범진은 위대한 선사들의 깨달음이 스티브 잡스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애플은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고 인류의 미래를 재창조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22일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김범진 명상코칭가를 강연자로 '통찰력의 비밀, 스티브 잡스와 선(禪)' 을 주제로 화요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손가락으로 아이폰 화면 터치… 이것이 直指다

'스티브 잡스 아이 마인드' 저자 김 범 진 명상코칭가, "선(禪)사상이 스티브 잡스 성공 이끌었다" 주장

#스티브 잡스는 선(禪) 수행자

아이폰3이 출시됐을 때 나는 그 혁신적인 디자인에서 왠지 친근함을 느꼈다. 그것은 일본 선원에서 본 선석(禪石)의 모습이었다. 선석 사진과 아이폰의 뒷면을 함께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함에 놀라워한다.

더욱이 아이폰에서 단순하고 고도로 집중된 삶을 사는 선(禪)수행자의 기운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스티브 잡스의 내면에는 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에 태어나 샌프란시스코의 선셋 디스트릭스에서 양부모인 폴과 클라라 잡스 밑에서 자라났다. 잡스의 유년시절인 1960년대에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와 선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두 가지는 잡스의 내면에 평생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양에서 건너온 선의 물결이 넘치고 있었다. '선의 붐(Zen Boom)' 이라 불리는 현상이었다.

선불교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지식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또한 젊은이들은 히피 문화에 빠져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LSD(향정신성의약품)와 선의 체험이 유사하다는 것에 끌려 선에 입문하곤 했다. 개별적 존재가 온 우주의 전체성에서 녹아드는 행복한 느낌,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느낌, 폭발하는 창조성, 영적인 체험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티브 잡스는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분위기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

잡스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환각제를 가까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양의 사상과 선을 알게 된 후에는 마약이 유치하다고 느끼게 됐다. 잡스는 대학 도서관에서 불교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곧 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침대 위에 양탄자를 깐 다음 그 위에서 명상을 했다.

컴퓨터와 논리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던 잡스에게 직관과 체험,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은 신선한 자극이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타리(Atari)라는 게임회사에 근무하다가 친구 한명과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구루들은 잡스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잡스는 본격적으로 로스알토스 선원에서 선 수행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의 정신적 스승이 된 사람, 코분 치노(1938~2002) 선사를 만난다. 그 후 잡스는 선 수행에 깊이 빠졌고 선은 삶의 일부가 됐다.

치노 선사와 잡스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서 잡스가 애플에서 나와 넥스트를 창업했을 때는 회사의 공식적인 멘토 역할을 맡기도 했다.

#단순함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다

아이팟은 그때까지 애플이 내놓은 제품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 2002년 7월, 윈도 사용자도 바로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아이팟이 나오자 매출은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2002년 가을에 14만 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20만 대나 팔려나갔다. 아이팟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끈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함과 간결함에 있었다. 디자인은 단순했고 사용법은 간단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융합돼 있어서 아이팟을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저장돼 있던 음악이 자동적으로 아이팟에 다운로드 됐다. 그 어떤 매뉴얼이나 주의사항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 이런 단순함은 잡스가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잡스는 개발팀에게 버튼을 세 번 이내로 눌러서 원하는 곡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잡스는 삶의 모든 면에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팟을 소개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단순한(Simple)' 이라는 키워드다.

선의 단순함도 연결을 전제로 한다. 선사들의 삶은 간소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결코 궁핍이나 결여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행복의 근원과 연결돼 있음을 알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자신 밖에서 찾지 않고 소유할 필요도 없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면 된다.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집에 정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산을 향해 작은 창을 하나 내면 그만이다. 내가 다른 존재와 연결돼 있음을 자각하고, 행복의 근원과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단순해진다.

#곧바로의 정신, 직관(直觀)의 힘

아이폰의 장점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점이다. 사용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아도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직관적 판단 후 실행해보면 그렇게 된다. 애플의 제품에 대한 평가에는 직관성이 강조된다. 직관적 인터페이스는 두꺼운 사용설명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마치 선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두꺼운 경전을 필요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직관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잡스는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한 기술을 창조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개발로 이어졌다. 직관적 디자인에 대한 강조는 애플의 디자인 철학 가운데 하나인 '박스에서 꺼내 바로 작동하기' 에서 잘 드러난다.

스티브 잡스의 세 가지 통찰법은

단순하라·깨라·곧바로 뛰어들어라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아이폰의 외형은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색깔만 두 종류로 했을 뿐 모델도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모델의 단순화를 통해 애플은 그 어떤 경쟁업체보다 많은 수의 파트너를 갖게 됐다. 아이폰이 한 가지 모델로만 생산되는 덕에 모든 액세서리 업체들이 이 모델을 위해 금속, 나무, 실리콘, 고무 등의 재질로 된 다양한 케이스를 탄생시켰다. 단순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다양성을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직지(直指)의 힘

애플은 컴퓨터 명령어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화면에 포인터로 조작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 를 개인용 컴퓨터에 처음 상용화 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모두 세 번에 걸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혁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1984년 마우스로 조작하는 초기 맥이었다. 그 이전의 컴퓨터는 키보드 명령어로 입력해서 처리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컴퓨터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의 불립문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01년 클릭 휠을 사용해 조작하는 아이팟이다. 그 이전의 MP3는 클릭을 수없이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구조였다. 천 곡이상 저장된 아이팟에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세 번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인 터치 조작이다. 손가락은 화면의 대상에 곧바로 접촉한다. 매개를 거치지 않고 본성으로 곧바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의 '직지(直指)' 와 일맥상통한다. 선의 네 가지 요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자신의 본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가슴의 소리를 따르라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식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잡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애플, 매킨토시 픽사,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 만들어낸 결과였다. 직관은 머리가 아닌 가슴의 목소리다.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따라가는 길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따라 가느라, 다른 이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궁극적 실재나 존재의 본성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통찰의 대상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발견되기 힘들고 더욱이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다.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선에서는 단순한 삶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 고도로 집중되고 맑은 의식 상태에서 직접 바라봄을 통해 존재의 실상이 드러난다. 잡스는 젊은 시절부터 선수행을 통해 이런 직관적 능력을 키워왔다.

김범진 명상코칭가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 법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 동경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 나우코칭의 대표를 맡고 있다.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 •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련 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궁법, 조상영가 찾는법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금	5~6시	
3. 바 라 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다게작법,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목 • 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해 동 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

천하대도 혜안과 천안통을 정통불가와 도가정통 초우주의식 주문도법으로 생명과 자성에 문을찾는 견성도법 지도자 포교사 양성 신묘년 천안통 대법회

도고마성 귀신잡신 마귀신은 역대 그 누구도 못다룬 마장을 도덕천존 보좌관 주초대장만이 다룬 법 전수

21세기 최대의 이슈.
평생자격취득 교육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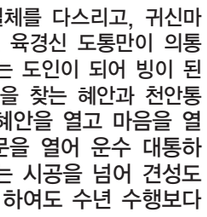
생노병사의 베일에 감춰진 대체의학 인간의 병은 어디서 오는가 역대 그 누구도 모른 베일을 벗기는 도가의 최고 공능법과 유가 불가의 특수공능법과 최고 비밀 초우주의 생명에 문을 찾는 특수 공능기공사 특수 참선법에 초보자, 관리자, 지도자, 자격취득 평생직업 전문양성 교육. 얼굴상이 부귀와 빈천을 좌우한다는 전문인 양성. 광대뼈, 들창코, 주걱턱, 위입술, 신체균형 조정. 최첨단 단기수련으로 자격취득 국내외에 진출.

천지공사 이 법은 지구촌 현재 종사자 및 맛사지 지압 교정 특수참선수행법 영업을 하는자, 의술담당자, 대학졸업자, 체육유단자, 시술자 ,기공사, 지압사, 체육사, 침술사, 취직으로 휴직사 피부미용종사자, 신에 접신한자, 한방양방시술자, 골격사, 국내외취업자, 비만관리사, 체형미용사 등 환자와 인체를 다루는 분들과 현재 종사자 대체의학으로 사람을 만지면 본인 원기와 골수가 빠져나가 건강과 생명에 지장은 물론 가정들도 불화가 일어나는 일체법을 막아주는 도가, 유가, 불가 최고의 초 공능비법 수련으로 가장빠른 평생직업 자격을 취득하여 직장에 구애받지 않는 지도자 기공사, 관리자, 국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에 찬스 명퇴자 체육종사자 현재 사업을 경영 하는분.

■교육과정 : 1년과정 6개월과정 특수반 3개월
■교 육 비 : 일반 50만원 특수반 100만원
■교육시간 : 매주 금, 토, 일 - 오전반, 오후반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02)821-6622, 7767 / 010-3239-3110
사단법인 세계 불교달마종교육원
면벽구년 달마심기선무기공회

대용맹정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도덕천존대일여래 보좌관 주초대장이 불사신 불사조를 관리하시므로 살아서 살아서 무진도법인 도적 천존에 들어가야 원시천존에 주초대장을 만나 성현과 신선과 사람몸을 받고 이세상 거부장자로 태어나려면 천경신 지경신 인경신 수행한 자만이 현장법사와 손오공과 마장을 다루는 법을 전수받는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전통도장도통으로 혜안을 열어 자신의 일체를 다스리고, 귀신마장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의통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빙이 된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등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혜안과 천안통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하여 팔자와 운명을 바꾸어 천하를 다스리는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년 수행보다 더 큰 능력을 얻는 지도자 양성.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특별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동시법회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 입제 : 양력 2011년 3월 5일(음 1월 23일 토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3월 6일(음 1월 24일 일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중 천룡진인 환성태일 합장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전남전법단, 광주시 ‘UN 인권도시’ 추진 적극 지지



광주전남전법단은 2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및 ‘UN인권도시’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 만들기에 광주전남불교전법단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불교전법단(단장 도제, 이하 전법단)은 2월 18일 광주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UN 인권도시’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진 스님(광주 광덕사 주지)등 13명의 단원스님들이 참여했다. 스님들은 “광주는 역사적으로 의병활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및 5·18민주화운동 등 인류의 보편적 덕목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충실히 실현해 온 도시”라며 “광주시의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인권도시 추진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전법단은 “여러 국가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다문화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현재 광주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와 관련해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18일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집행부가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며 사업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전법단 관계자는 “광주는 ‘인권’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도시다. 인문과학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적했다.

한편, 전법단은 3월 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다문화 가정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전법단의 공식적인 첫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 세대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음악회는 불교음악과 다문화음악, 국악 등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행사에는 성마 스님의 바라춤, 천음음악단, 지연 스님, 이복순 가야금 병창, 범능 스님, 해뜨는 다문화 어린이합창단, 광주전남불교연합합창단, 이정옥 등이 참여한다. (062)385-1311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

광주사암聯 회장 현지 스님 추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이하 광주사암연) 회장에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 사진)이 추대됐다.

광주사암연은 2월 19일 치평동 불교회관 임시총회를 열고 제20대 회장에 현지 스님을 추대하고, 집행부와 봉축기획단 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40여 사찰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사찰 16개를 제외한 26개의 회원사찰이 추대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선출은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결의됐다.

현지 스님은 “봉축기획단 구성이 조금 늦었지만 이달 안에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원년’으로 행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부도전에서 2월 24일 기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기산 스님 선운사 부도전 봉안

선운사, 환속 논란 대립에 ‘부도전 운영규칙’ 제정

호랑이 입승으로 명성을 떨쳤던 재기당 기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이 2월 24일 선운사 부도전에서 봉행됐다.

문도인 스님은 “후학들에게 스님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스님의 수행정신을 마음에 새기고자 부도탑을 모시게 됐다”며 “효행의 실천이며 의를 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한편, 기산 스님의 부도탑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과 문도들의 대립에 대해 선운사 운영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중의 화합을 위해 기산 스님 부도를 선운사 부도전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운영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향후 ‘부도전 운영규칙’을 제정해 선운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기산 스님은 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0년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1월 조계종 승적부에서 제적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내 떠나고 식당만 이용 했는데”

홀몸 남자 어르신 요리에 도전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남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리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복지관은 배우자를 잃은 남자 어르신들이 직접 강좌 개설을 요청해와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강좌는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2시간 동안 실습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장은종 어르신(70)은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식당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복지관 부관장 보연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립광주博, 명·청 회화전

기획전시실에서 3월 27일까지

중국 남종화의 전통 화맥을 잇고 있는 광주에서 명·청시대 중국 회화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3월 2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명·청 회화전을 개최한다. 전체 전시 작품은 98점으로 3개 주제로 구성된다.

박물관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불교전시 유물의 개편을 포함한 상설전시 기능강화 △지역별 특별전시회 개최 △수요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 음악회,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 우리문화 한마당,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가족영화 감상회 개최 △야간 개장 활성화 및 토요문화마당 운영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산작법은 불교의식이자 전통예술”

광주 법륜사 주지 월 인 스님



광주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사진)은 도심 속에 불교전통의식대학을 세우고 불교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월인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광주 서구 도심 속 법륜사는 남도 지역의 중요한 영산작법 교육장이다.

월인 스님과 영산작법 인연은 1967년 스님이 11세 동진출가하면서 부터다. 스님은 선암사에서 대중생활을 하면서 당시 어른스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의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스님은 봉서사 영산작법 보존회와 봉원사 일응 스님으로부터 본격적인 불교의식을 공부했다. 이후 월인 스님의 불교의식은 점차 전문화됐다.

그 후 광주전남지역에 영산작법을 전파하기 위한 모임으로 1993년 전통불교영산회가 창립됐다. 호산 스님, 원명 스님, 혜령 스님 등 20여 스님들이 모여 시작한 영산회는 이제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과 교육을 하는 불교단체가 됐다.

“현재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은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자산입니다. 의식(儀式) 전문 교육기관은 스님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우리 문화자산을 접할 수 있어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월인 스님은 전통불교영산회 회원들과 함께 5·18행사 등 광주전남지역의 행사에서 전통의식을 선보이며 불교의식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스님에게는 대중화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영산작법은 불교의식이자 전통예술차원의 문화입니다. 일반인들이 작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스님들이 불교의식의 전통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인 스님은 작년 법륜사 내 법륜범음불교대학을 개교했다. 스님이 주석하는 법륜사는 최근 사찰불사가 완료돼 충분한 강의실과 수업환경을 갖추게 됐다. 월인 스님은 강주(講主)에 안정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강의하는 상진 스님을 모셨다. 새롭게 개교한 학교에 대한 소문에 작년부터 40여 대중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

스님에게는 불교전통의식 외에 문인화 그리기 실력도 뛰어나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문인화 그리기 실력은 전국대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전, 전남도전, 무등대전 등에서 35회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월인 스님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법륜사를 서구의 중심 사찰이자 문화포교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포부도 밝혔다.

“무등산을 끼고 있는 동구에 비해 광주 서구는 상대적으로 포교에 취약합니다. 앞으로 법륜사를 서구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불교전통의식 외에도 지역민들이 문인화도 배우는 호남 시민들의 문화 발상지가 될 것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문도 합동 추모제 봉행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2월 18일 화엄문도 합동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종삼 스님 등 70여 화엄문도 스님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다례, 부도탑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화합 정진하는 화엄문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 가피 속 무럭무럭 꿈 키워요

원오사 꿈나무 공부방 제2회 졸업식… "가난이 아이들 날개 꺾지 않아야"


정관 스님이 졸업식에서 아이들을 격려하며 함께하고 있다.

반송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 사하촌(寺下村) 사람들이 어린 꿈나무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설립한 '원오사 꿈나무공부방'의 두 번째 졸업식이 열렸다.

반송 운봉초등학교 강당에서 19일 열린 졸업식에서는 공부방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5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다.

2008년 5월 문을 연 공부방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자를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규정하면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부모 등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위해 개설됐다.

아이들은 매일 오후 5시 30분 공부방에 등교해 저녁 9시까지 저녁 공양부터 수학, 영어, 한문 등 기초학습을 진행한다. 3월부터는 재학생 전원이 중학생으로 진급한 만큼 국·영·수 중심의 과목별 지도교사 봉사자를 재정비한다.

'원오사 꿈나무공부방'은 교과학습 이외에도 오카리나 악기 수업, 독서교육,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야구경기 초청관람 등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부방은 지역 장학생 15명에게 용돈장학금과 북한어린이돕기 등으로 5600여 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아이들 담임교사인 배현정씨는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점점 공부에 재미를 붙여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곳에서는 향후 100평 규모의 공부방과 도서실 불사 및 과목별 지도교사 증원, '꿈나무가꾸기장학회'의 재단법인 정식 등록 등을 추진 중이다.

정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나눔과 베풂으로 아이들이 가난으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51101-01-319589 꿈나무가꾸기 / 문의 (051) 545-7949 박지원 기자

천진불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가득

어린이포교 새 성공모델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부산 구서동의 주택가에 자리한 금화사(주지 매물)에는 주말이면 천진불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도량이 들썩인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금화사 초등불교학교(교장 김광호, 現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는 1996년 천자문교실로 시작해, 97년 '어린이법회'가 아닌 '초등불교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조계종 포교원에서 지정하는 '어린이·청소년포교 중심도량'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등록된 재학생 수만 30여 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 어린이포교도량이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성공 요인은 폭넓은 교육과정과 엄격한 출석관리, 그리고 자모회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어린이법회에서 실시하는 기초교리 및 사찰 예절교육 뿐만 아니라 다도와 요가, 찬불가와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3회 이상 예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곧바로 퇴학을 당하게 된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오랜 전통인 졸업식에서는 졸업장과 함께 트로피, 옴자가 새겨진 순금목걸이, 도장 등이 수여된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된 '자모회'는 약 40명이 가입해, 자녀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한동안 쇠퇴한 거사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아버지들의 가입은 권유가 아닌 필수사항이다. 실제로 경내를 벗어난 외부행사에서는 아버지들의 참석율도 높게 나타난다.

김광호 학교장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학업성적이 아닌 인성교육과 규칙적 생활, 그리고 효경사상이다"라고 강조했다.

(051) 582-3042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박지원 기자

불교교육 프로그램 앞다퉈 속속 개강

3월 부산 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에서는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불교교육프로그램을 앞다퉈 개강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교육관(학장 무관·구,안국불교대학)에서는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더불어 '불교학과' '선문화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등 3개 불교학과로 깊이 있는 배움의 장이 마련된다. 문의 (051) 501-7554~5

홍법사(주지 심산)에서는 제16기 국제포교사양성과정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3월 4일. 문의 (051) 508-0345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도 제1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지도사과정'과 '전문지도자과정(자격증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집에서 컴퓨터로 청강할 수 있는 사이버반을 운영해 인기가 높다. 문의 (051) 852-0852 박지원 기자

"정부, 북한 포용해야"

부산종교지도자協, 제92주년 3·1절 기념 평화기도회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2월 22일 정오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제92주년 3·1절 기념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통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은 "북한은 아집과 분열이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제92주년 3·1절을 맞아 천도교 지도자 김성수 도훈(전 부산동천고교장)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인 간의 친목과 이해증진, 공동선 실천을 위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불교, 기독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개 교단 성직자와 신도들로 구성된 단체다.

문의 (051) 558-1970 박지원 기자

정각 스님, 일붕선교종 제5세 종정 취임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5세 종정 정각 스님의 취임법회가 2월 22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사에서 스님은 "종도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일체감을 확립하며, 종단의 포교역량 강화 및 위상 재고를 통해 한국 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教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教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教)란 : 근본불교(根本佛教)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教)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空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教)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教)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 인 불 교 대 학 무 애 정 사

문의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㉔

공양 · 발우공양

스님, 발우 씻은 물도 시주물 입니다



해인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은 물론이지만, 중국 · 일본 선원도 공양은 하루 세 번이다. 그러나 천 년 전 당송시대에는 아침과 점심으로 하루 두 번만 공양했다.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일체 먹지 않았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의 규범인 오후불식(午後不食)의 법도를 따른 것이다. 수행승에게 있어서 공양은 생명을 유지시켜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뿐[但療形枯, 爲成道業], 식도락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선원총림의 창설자 백장회해(720~814)는 공양을 '재죽이시(齋粥二時, 하루 두 차례)'로 한정했다. 그 사실을 송초(宋初)의 한림학사 양억(楊億)은 〈선문규식(古清規序)〉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밥(齋)과 죽(粥)으로 마땅히 두 때에 고루 미치도록 한 것은 절약과 검소에 힘쓰고 법(法, 율장)과 먹는 것이 일치해야함을 표방한 것이다.[齋粥隨宜, 二時均遍者, 務于節儉, 表法食雙運也]"

선원에서 아침 공양은 '조죽(朝粥, 아침엔 죽)'이라고 하고, 점심 공양은 '오재(午齋, 점심엔 밥)', 저녁 공양은 '약석(藥石)'이라고 한다. 아침은 6시, 점심은 11시, 저녁 공양은 여름엔 5시, 겨울엔 4시 30분이다. 저녁 공양을 '약석(藥石)'이라고 한 것은 기갈(飢渴)과 허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또 저녁엔 죽을 먹었기 때문 '만죽(晩粥)'이라고도 한다.

선원에서 저녁공양을 하게 된 것은 1100년대 무렵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로서 장로 종색 선사가 편찬(1103년)한 〈선원청규〉 '호계(護戒)'장에는, 계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다만 부처님 말씀(金口)만 의지할지언정 함부로 용렬한 무리들의 말을 따르지 말지어다. 먹어서는 안 될 음식(不應食: 마늘, 고기, 파, 우유, 돼지 기름 등)과 공양할 때가 아닌 때[非時]에는 먹[食]는 것을 엄금한다[但依金口聖言, 莫擅隨于庸輩, 如不應食, 非時食, 並宜嚴禁].

'비시식(非時食)'이란 '먹을 때[時]가 아닌데[非] 먹는 것[食]'을 가리킨다. 정오(正午)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가 비시(非時, 먹을 때가 아님)로서, 이는 곧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일체 공양할 수 없다는 말이다. 1103년까지는 규칙에 의거해 저녁 공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로부터 100년 후인 1209년 즉 송대 중후기(북송 말) 무량종수(無量宗壽) 선사가 편찬한 〈입중일용청규(入衆日用清規)〉에는 저녁에 공양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나온다. 그것이 '약석(藥石)'이다.

"중료(衆寮, 대중방)로 돌아가 약석(藥石)한다. 각각 자리로 가서 앉되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발우에 담지 말라. 소리 높혀 죽반(粥飯)과 짜다 시다(鹽醋)를 찾지 말라. 공양이 끝나면 중료에서 나간다[歸寮藥石, 各就案位, 不得先起盛食. 不得高聲呼索粥飯, 鹽醋之類, 食罷出寮]."

또 1264년에 편찬된 〈입중수지(入衆須知)〉에도 '약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로 보아 총림에서 저녁공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100년대 중반(1103~1209년 사이)으로 송 중기이고 북송 후기이다. 〈칙수백장청규〉(1338) '대중장'에는 저녁 공양을 '만죽(晩粥, 저녁 공양은 죽)'이라고 쓰고 있다.

공양을 다른 말로는 '행익(行益)'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양할 때'를 '행익차(行益次)'라고 하는데, 보조국사(1150~1201)가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도 나온다. 공양할 때는 4합(盒) 또는 5합으로 된 발우를 사용한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전히 발우공양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발우공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교회 내부처럼 긴 책상과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재당(齋堂, 식당)에서 사발(沙鉢)이나 그릇 두 개를 가지고 공양한다. 중국 불교에서 언제 어느 때 왜 발우공양이 사라지고 이상한 사발 두 개로 공양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막연히 근대 이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신해혁명(1911년) 이후 부르조아적 색채가 적지 않게 말살 되면서, 유교를 비롯한 불교문화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 때 청말의 고승인 허운 화상이나 내과 선사도 수차례 군중 앞에 끌려 나와 수모를 당했고, 오래된 보이차나 전통 보이차창도 모두 파괴됐다.

대만 역시 발우공양을 하지 않고 사발 두 개로 공양한다. 그래서 근래 중국 사찰을 답사한 분들은 한결같이 "발우공양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원래 중국에서는 발우공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현상일 뿐 본래는 발우공양을 했다.

종색 선사가 편찬(1103)한 〈선원청규〉 1권에는, 공양할 때의 법도와 주의사항, 그리고 발우를 펴고 거두는 예법에 대하여 서술한 '부죽반(赴粥飯, 공양에 임하여)' 장(章)이 있다. 거기에는 "발우를 펼 때[展鉢]는 먼저 합장하라. 다음에는 파복(帕複; 鉢袋, 발우를 싼 자루)을 풀고, 발식(鉢拭: 鉢巾, 수건)을 꺼내서 작게 접는다. 시저대(匙筯袋, 수저, 젓가락 주머니)는 몸 가까이 마주보이는 곳에 가로로 놓는다. 그런 다음에는 정건(淨巾)을 펴서 무릎 위를 덮는다.(…) 발단(鉢單, 장련상 앞부분)에 발우를 놓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발우(鎭子)부터 꺼내어

공양은 생명유지 수단일 뿐

당·송 시대 까지는 조석 공양만

차례로 놓는다.(…)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자리가 비좁으면 3개(三鉢)만 펴도 된다. 어시 발우(頭鉢)는 뒷 쪽(무릎 쪽)에 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공양 후 발우를 거둘 때에는 "두발(頭鉢, 어시 발우)에 물을 받아서 차례로 씻되, 두발 속에다가 작은 발우를 씻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앞의 내용을 본다면 분명 발우 4개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우공양을 시작할 때 처음 받는 물을 '정수(淨水)'라고 한다. 그리고 발우 씻은 물, 즉 세발(洗鉢)한 물은 '절수(折水)'라고 하고, 받는 물통을 '절수통(折水桶)'이라고 한다. '절수'라고 하는 까닭은 발우를 씻은 다음 반절(半折)은 버리지만, 밑에 반절(半折)은 밥 티나 고춧가루 티 등이 있으므로, 그것을 마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받는 물과 세발한 물 모두 '천수물'이라고 하고, 세발한 물을 받아서 버리는 통을 '천수통'이라고 하는데, 〈선원청규〉와 〈칙수백장청규〉 그리고 〈선림상기전〉 등 선문헌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다. 또 '퇴수물(退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없는 말이다. 천수물, 천수통은 절수(折水)와 절수통(折水桶)의 와전이 아니면 분명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일 것이다. 발우의 비속어가 '바리때' '바루때'인데도 아어(雅語)처럼 사용해 오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 역시 그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절수'를 '천수물'이라고 한 곳은 1961년에 간행된 운허 스님 편 〈불교사전〉이다. 844쪽 천수수(千手水) 항목에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에 먼저 받아 놓은 맑은 물. 이 물로 발우와 수저를 씻은 뒤 한곳에 모아서 아귀(餓鬼)들에게 주어 먹게 함. 이 물을 천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큰 방 천정에 천수주(千手呪)를 써 붙여서, 그 글이 받아 놓은 물에 비치게 하고, 이 비치는 천수주의 신력으로 물이 감로수와 같이 되어 아귀에게 주어서 그들이 받아 마셔도, 그것이 불로 변하여 고통을 받는 일이 없이 능히 배고프고 목마름을 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천수물이라 한다 함"라고 하여 세발수를 천수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선학사전〉 〈칙수백장청규〉 등 선문헌 그 어디에도 세발한 물을 '천수물'이라고 하고, 그 물통을 '천수통'이라고 한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은 고증이다. 〈칙수백장청규〉 '주지장'에는 세발수를 '절수(折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1대중장2에는 '절발수(折鉢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1대중장2 세발법(洗鉢法)에는 "발우를 씻을 때에는 먼저 두발(頭鉢, 어시 발우)에 물을 붓는다. 그리고 작은 발우부터 차례대로 씻되, 두발 안에서 수저와 작은 발우를 씻지 말라. (…) 더운 물로 발우를 씻지 말라(나중에 아귀에게 주므로). 절수(折水)하기 전에 개슬건(蓋膝巾, 무릅 덮은 수건. 淨巾)을 거두지 말라. (…) 절수(折水)를 할 때는 마음 속으로 게송을 외우되, '나의 이 세발수는 하늘의 감로수와 같다. 아귀에게 주노니 모두 다 포만(飽滿)함을 얻을 지어다. 옴 마휴라세사바하'"

발우공양은 한국·일본서만

중국은 사발 그대로 공양

세발수를 '절수'라고 한데는 고사가 하나 있다. 중국 오대산 화엄도량에 지봉(志峰) 선사라는 고승이 있었다. 어느 날 선사가 보현전(普賢殿)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神)이 무릅을 끓고 스님 앞에 나타났기에 지봉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저는 호계신(護戒神)입니다." "그렇소. 나에게 오랜 허물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소.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소." 호계신이 말했다. "스님께 무슨 허물이 있겠사옵니까? 다만 작은 허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오." "스님, 발우를 씻은 물(折鉢水)도 시주물(施主物)입니다. 스님께서는 매번 다 쏟아 버리는데, 옳은 법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마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후 지봉 선사는 세발수를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마셨는데, 위장병이 생겼으나 10년 만에 저절로 완쾌됐다."(〈선림상기전〉 20권 절수통(折水桶))

이후 세발한 물에도 시주물의 일부가 들어가 있으므로 반절(半折) 상층 부분은 절수통에 쏟았지만, 하층 부분의 반절은 마시게 되었는데(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음), 그 이후 세발한 물을 '절수(折水)'라고 하고, 그 물을 받아 담는 통을 '절수통'이라고 하게 되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❷ 부여 무량사(無量寺)

꿈꾸다 죽은 늙은이 아직도 꿈을 꾸는가


극락전 옆의 목련이 봄 햇살에 부풀고 있다.

"이제 목련이 피겠다." 영산전 마당을 걸어 나오던 할머니가 함께 온 아이들의 발꿈치에다 한 마디 던진다. 아이들 걸음에 부풀기 시작한 목련의 그림자가 밟힌다. 겨우내 얼었던 석탑의 어깨 위에는 어제와 다른 햇살이 쌓이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다. 부여의 무량사.

그 날도 봄날이었다. 1493년, 조선의 지성 김시습(金時習:1435~1493)은 이곳 무량사에서 자신의 마지막 글인 〈법화경〉의 발문을 쓴다. 그리고 봄비가 흩뿌리는 삼월에 그는 병든 몸을 미련 없이 벗고 육신의 생을 끝낸다. 우리 민족 최초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를 비롯해 시와 산문 등 수많은 글과 문집을 남긴 그는 자신의 이름이 꽃처럼 부풀기 시작했을 무렵에 돌연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로 들어선다. 권력 앞에 무너진 인륜과, 학문이 학문에서 끝나는 현실을 온몸으로 고음(苦吟)하며 그는 도포 대신 법의(法衣)를 입고 세상의 바깥쪽을 걷는다. 길었던 그의 방랑이 멈춘 곳이 무량사다.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839~856) 시대에 범일 스님(810~889)이 창건한 절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도량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천왕문을 지나 마당에 오르면 기품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도량을 굽어 보고 있고, 그 곁에 조선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극락전과 백제의 시절을 간직한 5층석탑이 서있다. 격조 있게 떨어져 나간 단청의 여백을 봄볕이 채우고, 아! 감탄사처럼 깨져나간 석탑의 상처 위엔 봄바람이 불어온다.

봄볕이 아직은 짧다. 어느 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온다. 한 스님이 종각으로 간다. 저녁종소리도 서쪽 산을 넘어간다. 한 시대를 염려했던 김시습은 "나 죽은 뒤 내 무덤에 표할 적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나의 마음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품은 뜻을 천 년 뒤에 알아주리"라고 '나의 삶'이란 시에서 읊었다. 종소리가 도량을 적시고, 마당 끝에서 백구가 귀를 세운다.

세상의 바깥에서 꿈을 꾸던 당대의 한 지성은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살다간 이가 몇이나 될까. 꿈꾸다 죽은 늙은이의 이름이 산문 밖 부도전에 걸려 있다. 아직도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 옛날 아쉬웠던 봄이 다시 오고 있다. 세상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꿈을 꾸고 있는 이라면 부여의 무량사에 다녀올 일이다. 꿈꾸다 죽었고 그리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안타까운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꿈을 꾸고는 있는가.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4〉

눈에 보이는 것 진리 아니다

어떤 수재(秀才: 서생)가 스님의 손 안에 있는 주장자를 보고 말했다.

"부처님은 중생의 원(願)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네."

수재가 말했다.

"저는 화상의 손 안에 있는 주장자를 가지고 싶은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지 않아."

수재가 말했다.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도 또한 부처가 아닐세."

有秀才見師手中柱杖乃 云 佛不奪衆生願是否
師云 是
秀才云 某甲就和尚乞取手中柱杖得否
師云 君子不奪人所好
秀才云 某甲不是君子
師云 老僧亦不是佛

이 대담은 수행자들의 일상적 규범과 조주 화상의 재치를 보여준다. 선의 재치로 '남이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풀이하고 있다.

초심자는 처음 입문해 진리를 접할 때 모순된 이론에 직면할 수 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라기보다 우주의 근원과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중생의 오판을 지적하는 동시에 참 진리적 측면을 설파한 것이다.

진실은 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며,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리를 단순히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우주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공평한 관찰이다.

진실은 생사·시비 여읜 곳에 사람 아닌 우주적으로 봐야

우리는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깨끗할 필요가 없고 더러운 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진실은 분명 불구부정이지만 인간이 만든 세계는 공평한 진리와 다른 인간의 꿈으로 이룩한 세계이다. 불구부정이 진리이지만, 인류는 자연이 인류에게 반드시 행복한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류는 냉혹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냈다.

문명이 낳은 문화생활은 인간의 규범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의라 자처했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으로 단죄했다. 그것이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 행복에 반한다면 다수는 소수를 단죄할 수 있다는 인간들만의 윤리이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적 규범이다.

인간의 문화생활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비판적 측면도 강하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는 인간은 원래 문화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추종에서 오는 불합리한 규범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에 붓다는 범우주적인 관점을 설파하고 인간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붓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인류의 규범에도 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방대한 붓다의 계율론이다.

한 마디로 붓다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범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인류의 규범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붓다적 삶은 내면으로는 공평한 진리에 사무치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현실적인 상황을 개척하면서 때로는 초연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붓다적 삶은 규범을 중시하면도 비규범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삶이다. 그야말로 한 가지에 고정하지 않는 삶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철저히 지켜야할 규범과 규범을 벗어나도 되는 것을 잘 가려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③ 懶翁禪師詩 山居 (나옹선사시 산거)



청우불응산이인 거세수정선해추 나담간천 한불월첨간 흥시청풍모 간이인염산 옥문불자 아자거산불염산 시문모옥이인간

柴 : 섶, 땔나무 또는 잡목 시
簷 : 처마 첨
磵 : 산골짜기 물 간
膽 : 쓸개 담

산에 살고부터 산이 싫지 않나니



我自居山不厭山 柴門茅屋異人間 淸風和月簷前拂 磵水穿胸洗膽寒(아자거산불염산 시문모옥이인간 청풍화월첨전불 간수천흉세담한)
나는 산에 살고부터 산이 싫지 않나니 가시사립 띠풀집이 인간과 같지 않다 맑은 바람은 달과 어울려 추녀 끝을 스치는데 시냇물 가슴 뚫고 쓸개 씻어 차가와라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선어록 해제 34 한국선과 선어록 5

진각국사어록

이규보가 찬술한 〈조계산제이세고단속사주지수선사주증시진각국사비명병서〉에 따르면 국사의 휘는 혜심(1178~1234)이고, 자는 영을이며, 스스로 무의자라고 불렀다한다. 속성은 최씨이고, 이름은 식(寔)인데 나주 화순현 사람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보조국사를 참하고 26세 때 출가했다. 28세 때 심인을 전수받은 이후 둘째, 셋째 거듭 심인을 인가받았다. 33세에 보조국사가 입적했다. 그 뒤를 이어 수선사 제2세가 되었다.

저서로는 〈선문염송집〉30권, 〈심요〉1편, 〈조계진각국사어록〉1권, 〈구자무불성화간병론〉1편, 〈무의자시집〉 2권, 〈금강경찬〉1권이 전하고 있고, 〈선문강요〉 1권이 있었다 하나 전하지 않는다. 〈진각국사어록〉에는 상당법어, 시중, 소참, 실중대기, 수대, 하화, 법어, 서답 등이 수록돼 있으며, 3종의 게송과 24종의 선화를 담고 있는 〈진각국사어록보유〉 등이 있다.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은 선문 화두의 대표격인 '구자무불성' 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수도상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화두의 십종병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무의자시집〉은 혜심의 시를 모아 엮은 책이다. 〈선문염송〉은 1226년 (고종 13년) 겨울에 조계산 수선사에서 문인인 진훈 등과 함께 선문의 고화 1125칙과 이에 관한 모든 선사들의 염 · 송 등을 합해 30권으로 만든 책이다.

간화 없이 무심할 수 없다는 혜심의 '진각국사어록'은 한국 最古 선어록

한국의 선종사에서 혜심의 공로 가운데 하나는 간화선을 확립한 것이다. 특히 간화선에서 기초가 되는 신심(信心)을 강조해 조사의 문을 얻는 것은 오직 신심에 있고, 따로 방편이 없다고 했다. 마음이 부처임을 믿는다는 것도 마음뿐만 아니라 온갖 존재가 그대로 하나의 동일진성임을 굳게 믿은 연후에 화두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두를 강조하면서 성적등지의 상태를 중시했다. 따라서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곧 망상을 떠난 상태이며, 망상을 떠난 상태가 그대로 성성적적의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혜심의 성적등지와 간화일문은 더 이상 별개의 방편문이 아니다. 이것은 성적등지문과 간화경절문을 별개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지눌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혜심 간화선의 특색으로는 지눌의 삼종문에 있어서 최상근기를 위한 간화경절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대중화된 간화일문을 일구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눌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 아니라, 지눌의 삼종문을 간화일문에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혜심이 간화선법을 일상화시킨 근저에는 곧 무심(無心)이 있었다. 혜심은 무심한 후에도 간화를 해야 하며, 또한 간화를 통하지 않고는 무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혜심은 간화선 수행에 필요한 몇 가지 방안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실천도가 곧 실참실오이다. 실참실오를 위해서는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설한 10종병을 여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각국사어록〉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선어록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기록상으로는 혜심 이전에 지눌에게도 〈상당록〉과 〈법어가송〉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조국사법어〉가 남겨져 있으나, 이는 지눌이 직접 서술한 저술들을 모은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어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각국사의 어록은 순수한 어록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선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진각 국사의 어록도 다른 어록들과 마찬가지로 그 문인들이 엮어서 간행했겠지만, 현존본에는 그 집록자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초간본이 언제 간행됐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조선조 중종 21년(1526)의 간본이 전해지고 있다. 1528년의 대광산 용문사 간본이 있으나 이것은 앞쪽이 반쯤 없어진 결락본이다. 활자본으로는 1940년 보제사 간행본이 있다. 이 두 가지 간본에는 편차나 소제목 등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1526년 간본은 상당 · 시중 · 소참 · 실중대기 · 수대 · 하화 · 법어 및 진각국사서답의 순서로 되어 있고, 끝에 보유가 붙어 있다. 보제사 간본에는 상당 · 서장 · 시인 · 시중 · 소참 · 야참 · 실중대기 · 수대 · 하화의 순서로 구성돼 있으며, 활자판으로 간행하면서 앞 간본의 보유까지를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부록을 붙여 놓았다.

이들 어록을 통해보면 혜심은 대부분 가르침을 내림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공안을 들어 이를 참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혜심은 이미 〈선문염송〉의 편찬 이전부터 공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화가 요청됐다. 〈진각국사어록보유〉에는 혜심이 즐겨 인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공안들이 집성돼 있다.

진각 국사의 어록은 그 내용이 대개의 경우 경전이나 조사어록 등의 문구를 끌어들여 합리적 이해의 문을 제시한 연후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이를 보충설명하고, 나아가 결론적으로 공안을 제시해 이를 참구토록 하는 것이 혜심 법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혜심의 사상은 간화일문(看話一門)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그의 스승인 지눌의 3종문 가르침에 기반을 두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간화참구를 보편화하고 있는 창조적 노력으로 간주된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아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게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르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지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갈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내 삶, 내 목숨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게


박정수 원불교 교무

바람도 없이 차가운 겨울날. 용인 헌산중학교 안에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 온 누리를 보듬어 아우르는 우리 시대 어머니, 원불교 박청수 교무(75)를 찾았다.

"1989년 제 첫 책 박청수 세계기행 〈기다렸던 사람들〉을 법정 스님께 보내드렸는데, 스님께서 앉아서 세계 구경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몇 차례 서신이 오간 뒤 박청수 교무는 불일암에 가고 싶다고 청했다. "…매화가지에 꽃망울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댓잎이 부서지는 봄 햇살이 향기롭습니다. 꽃가지에 향기가 번질 때쯤 다녀가십시오."하는 화답에 박청수 교무는 꽃가지에 향기가 번지는 시절인연을 꼭 맞춘 1991년 3월 20일. 불일암을 찾았다. "그때 법정 스님은 앞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이 내 얼굴이고 내 모습이니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저 묵묵히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면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공양을 먼저 와 있던 젊은이들과 함께 했는데 스님은 '여럿이 먹으니까 참 맛있다. 혼자서 하는 식사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나 다름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홀로 앉아 드시는 식탁을 떠올렸어요." 20년이나 된 이야기를 마치 엊그제 일 마냥 생생히 털어놓은 박청수 교무는 소녀처럼 눈빛이 반짝인다.

"화장실을 정랑淨廊이라고 하나요? 정랑엘 들어가 보니까 낙엽통이 있고 부삽과 비가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쓰여 있어서 신을 벗고 거기 있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느 집 대청마루보다 더 깨끗해요. 정랑 안에 앉으니 앞에 듬성듬성 창살이 박힌 창이 나있는데 창밖에 대밭이 훤히 보이고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가 일품이었어요. 벽에는 '볼일을 마치면 배설물을 낙엽으로 덮읍시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제야 왜 낙엽이 있고 비가 있는 까닭을 알아차렸지요. 정랑을 나오다 보니 '나올 때 문걸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말 잘 듣는 학생마냥 고분고분 소리 없는 지시에 따랐어요. 스님은 그곳이 기도처라면서 볼일을 보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어떤 잡념도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 국경·인종·종교를 뛰어넘어
> 무지·빈곤·질병 퇴치에 헌신

우물 또한 마치 막 싹싹 쓸고 닦은 듯한 바위에 물이 고여 있는데 '식수에 물 튀기지 않도록'이라 쓰여 있어 물 한 모금을 마시기도 조심스러웠다. 세수간엘 들어가도 물통, 대야, 빨래판, 비누 그리고 신고 들어가는 슬리퍼도 모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식당채 뒤뜰로 돌아가면 자그마한 항아리들이 나란히 묻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박청수 교무가 살며시 뚜껑을 열어보니 빨간 글씨로 "열어보지 마시오"라고 쓰고 그 아래 검정 글씨로 "91년 여름에 먹을 짠무지"라고 쓴 비닐봉지로 봉해져 있었다. 얼른 뚜껑을 닫았지만 다른 항아리 속 내용이 궁금해져서 열어보고 말았다. 거기 역시 '열어보지 마시오. 91년 여름에 먹을 배추김치'라고 쓰여 있었다. 나그네 버릇들이 서로 비슷하기에 써놓았으리라. 친절이다.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듯이, 스님은 모든 사물이 제대로 대접 받기를 바라셨다. 그 모습 그대로 개체에서 전체로 나아간 스님 삶이자 수행이었으리라.

"법정 스님께 가장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일을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편지를 보냈지요." 인도 히말라야 설산 라다크를 돕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궁리 끝에 법정 스님을 떠올렸다. 인도를 다녀와서 인도기행을 쓰신 스님은 형편을 잘 헤아리시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를 마치 통신원 리포트처럼 써서 보냈다. "자녀들을 가르칠 학교가 없어서 1만리가 떨어진 남인도 뱅글러로 대여섯 살 때 보내서 집에 한번 오려면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틀을 버스를 타고 와서도 또 걸어서 와야 하니까, 애를 학교를 보내고 나면 십년 만에 부모자식이 만나야 해요. 아무래도 학교를 세워야 할까 봐요." 편지를 받고 바로 스님이 오셔서 나도 거들어야겠다며 100만원을 놓고 가셨다. "스님은 늘 '제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 든든하지요?' 하셨어요. 제가 라다크에 학교를 짓고 나서 힘을 다 빠져가지고, '스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큰일 했어요. 큰일!' 그러셔요. 제가 '그러면 뭘 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 내면이 바닷가 갯벌 같아졌어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은 '아휴, 그래야 돼요. 큰일을 하고 나서도 힘이 남아서 쩡쩡하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일도 공이 되지 않지요.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야 정상이에요'라면서 격려해 주곤 했어요"하며 마치 방금 스님 말씀을 듣고 힘을 차리고 난 사람처럼 "법정 스님이 보내주신 엽서를 보면 '구름도 바라보세요. 별도 헤아리고요. 장거리 선수는 한꺼번에 기운을 쏟아내지 않는대요.' 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달하고 숨바꼭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달을 처음 보면 '어머! 달님' 그런다고. 나한테는 달님이 아주 친한 동무에요." 보름달로 나타나는가 하면 채워지기 전 모습으로 나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렇게 조금 남는 때가 있고 낮달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달을 보면 어머니 소식을 달이 다 아는 것 같다면서 해맑게 웃는 박 교무, 타고난 소녀다.

> 세상소리에 귀 기울이는
> 千手와 天眼 관세음보살

교무가 되고 5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온 박청수 교무. 국경이나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무지와 빈곤, 질병을 없애는데 한평생을 바친 '사랑' 그 자체로, 지구를 아우르고 보듬은 손이 큰 어머니다. 55개 나라를 도우며 세운 학교만도 나라 안팎에 모두 9개. 그밖에 인도 라다크에 카루나 자비병원설립을 후원하고, 그리고 바탐방 무료구제병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지뢰를 캐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호수물이 마르고 강물이 흐르지 않아 더는 농사지으며 살 수 없는 누크스지역 고려인들을 남부 러시아 볼가강가 볼고그라드로 옮겨 살게 하는 일도 큰 일이었어요. 중국 훈춘 조선족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학교를 세우게 한 일이나, 100년 만에 닥친 큰 물피해를 입은 북한동포를 도울 때는 후회 없이 있는 힘을 다 쏟았어요. 아프리카 12개 나라에 의약품을 보내 산 목숨 구하는 일에 힘쓰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폭발, 태풍 피해 같은 자연 재해가 생길 때도 구호품을 어서 빨리 보내야 하는 제 일감이었고, 21세기 불행한 전쟁터 이라크에도 의약품을 보냈어요."

南無千手千眼
觀世音 菩薩!
교무님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千手와 天眼으로 돕고 거드는 관세음보살이세요.
'숙제'를 읽으면서 善哉 善哉! 라고 찬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꽃소식이 들립니다. 향기로운 봄 맞으십시오. 法頂 합장 96. 3. 30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내 삶이, 내 목숨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게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출가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어머니가 '너는 시집가지 말고 너른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해라. 네가 교무만 된다면 대학까지 가르칠 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 별명이 대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대학 갈 사람 손들어보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손을 번쩍 들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그동안 어려운데다 쓴 돈만 105억 원이에요. 그게 지로용지도 없고 후원회도 없이 그저 제 말만 듣고 그냥 한 푼 두 푼 내놓으신 거예요. '모든 분들은 박청수 교무에게 돈을 주면 사무실에 쓰지도 않고 월급 나가는 사람도 없으니 한 푼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제자리 찾아간다'고 여겼어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를 비롯한 우리 부교무들은 다 10만원씩만 쓰고 살았어요. 어린 교무들은 그 돈에서도 2만원을 도로 내놨어요. 2만원이면 크메르에서 학생 하나가 먹고 자고 등록금을 댈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도저

몸과 마음은 하나!
용맹정진 기도수행에 건강 소홀하지 않으셨나요?
웰보녹용기력대보는 러시아산 녹용과 녹각,영지,당귀,천궁,오가피,작약등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정성으로 다린 제품입니다.
구입문의 : 02) 934-0160 / 010-4750-5899
입금구좌 : 농협 507046-56-051371 (임창현)

웰보녹용기력대보

■ 내용량 : 80ml × 60(액상)
단식이나 절식등에 효소와 함께드시면 공복감도없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아 선식대용으로도매우 좋으며 단식후 보식기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현미효소

■ 내용량 : 3.5g× 90(과립)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조 : 웰보H&F 제품허가번호 : 서울중랑164호 / 농장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42-1번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약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약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히 8만원 가지고는 못살겠다고 해서 15만원 줬죠. 요즘도 저는 총부에서 23만원 받아요. 차가 없으니까 주로 버스를 타고 다녀요. 혼자 끓여먹는데 23만원도 다 들지 않아요. 내가 뭐 화장을 하나 미장원엘 가나, 어디 돈 쓸 일이 있나요? 이런 옷도 다 30년 40년씩 입던 거예요. 여름치마 스물여섯에 입었는데 그때는 속이 좀 비쳐서 잘 입지 않다가 나이 드니까 더 좋은 거야. 가벼워서." 법정 스님 말씀처럼 맑은 가난이다.

박청수 교무 사랑실천은 자그마한 나눔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보육원 고아 128명에게 털모자와 타이즈를 사주는 일을 비롯해 미혼모와 아이 돌보기를 했고, 시각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어 소리잡지를 만들며 점자책을 만들도록 도왔다. "이 세상 이치가 작은 게 쌓이고 쌓여 커지고, 커지면 드러나죠. 뭐든지 작게 단순 소박하지만 뜻있는 일을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975년부터 31년 동안 다른 종교인 천주교 시설인 성 라자로 마을 나환자 돕기를 해왔다. 더구나 다른 이들이 마련해 주는 돈만 기다리지 않고, 15년 동안 엿을 떼어다 팔아 그 이익금을 보탰다. 이 말씀을 들으

화합을 위해서 다른 종교 가르침이나

교의에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라

며 펌프 마중물을 떠올렸다. 물을 붓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이치. 그동안 이 어른이 꾸준히 해온 일은 마중물 노릇이었구나 싶었다. 그뿐인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도 동참하고, 파리 길상사 건립과 성북동 길상사 창건 때와 길상사 지장전을 세우는 불사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 기원전 2세기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걸출한 영웅 인도 아소카 Asoka 대왕 포고문이 떠오르는 나눔이다. "누구도 자신이 믿는 종교만 받들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화합을 위해서 다른 종교 가르침이나 교의에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라."

"언젠가 성지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할 때 학교에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대요. 애들이 다 제멋대로 나가버리곤 해서. 제 소개를 할 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오늘은 유명한 사람이 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한 소녀였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었단다.' 6·25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학교 다니기 어려웠던 일, 배고팠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등상 한번 못타봤다. 그런데 출가를 하고 스물두 살 때 교도들이 요즘은 교당에 와도 교무님 설교 내용이 들을 것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교무가 되려면 반드시 실력을 쌓아야겠구나 싶었어. 목적이 생기고 자각이 드니까 대학 가서는 계속 수석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이 나고 하기 나름이더라. 나는 지금은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열심히 듣더라고요." 21세기 화두가 소통인데 공감을 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대가다.

"55년 동안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얻어진 고요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법정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사진쟁이는 교무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갔을 것이다. 스님은 입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무님을 통해 내게 '나눔'의 가르침을 주셨다.

요. 내 몸이 대적광전이지. 내 마음에는 먼지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빈 마음으로 사니까 삼라만상이 다 보이잖아요. 누가 불편한가? 제가 못 견뎌요. 남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부처님이 이루신 육신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번뇌를 여의어 고요하고, 세상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세상 아픔이 다 보이고, 불편이 있는 곳이면 세상 어디라도 달려가고, 뭇 사람들 마음을 읽고, 지금 겪는 어려움을 서로서로 손을 맞잡아 앞날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보살도를 이루는 이 어른은 그냥 그대로 '친절'이다.

원불교도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씀은 뭘까? "사람들이 가진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시간이 소중해요.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일평생 시간을 잘못 쓴 일이 없어요." 큰 어른들은 어쩌면 이리 한결같을까. 법정 스님도 '시간은 목숨이다' 고 하셨다. "그리고 시시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요. 시시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시시한 생각을 하면 시시한 사람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시한 생각을 할 틈이 있겠어요? 성공은 거저 오지 않아요. 잘 가꾼 벼를 거둬들이는 농부는 부지런히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알곡을 거둬들이죠." 참된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삶이 참되어 진다는 말씀이다.

밤낮 없이 너른 세상을 휘젓고 달리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마치고 테이프가 가슴에 탁 닫는 것 같다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청수나눔실천회를 비롯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이끄는 영원한 현역 박청수 교무.



나무청수관음보살 마하살
南無淸秀觀音菩薩 摩訶薩!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방하착!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길을 걷다보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비단 이런 달밤이 아니더라도 사물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지기 마련이다.

한 행인이 어찌하면 한결같이 따라 붙는 그림자를 떨쳐버릴까 궁리한 끝에 걷다가 뛰어보았다. 그런데 뛰는 속도만큼 그림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속도를 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제 숨을 돌리고 앉아 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나지막한 그림자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행인은 또 다른 묘책을 내어, 이제는 누워 보았다. 신기할 만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 붙던 그림자는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낮춘다는 것이 소중하고, 놓는다는 것이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 '조주장(趙州章)'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하루는 엄양(嚴陽)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갖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선사는 "방하착(放下著)"이라고 답

선입관이 사안 해결의 큰 장애

벗어나고 놓으면 심신 자유 얻어

했다. 엄양 스님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재차 "이미 한 물건도 갖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으라는 말이오"라고 반문했다. 조주 선사는 "그럼 가지고 가게"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엄양 스님은 대오(大悟)했다.

'방하'란 손을 뗀다거나 놓아 버린다는 의미이다. '착'은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방하착'이란 상대적인 관념을 미련 없이 저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렸다는 관념도 버리는 것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흉부 X선 사진 판독을 통해 결핵의 조짐을 의심할 만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X선 사진을 불빛에 비추면서 보는 것은 가슴영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수련의 시절 마음속에 미리 익혀둔 이론이 아닐까? 사전에 익힌 이론에 부하(負荷)가 걸려 있지 않을까. 법정의 재판관도 범죄의 사실 심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학도로서 예전에 익힌 판례의 유형들이 머리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 틀에 맞추어 판단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다면 조주 선사의 "놓아라"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담을 만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 관념이나 선입관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부하에서 벗어나면 육신도 마음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된다.

완성이란 일정한 수나 용량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Sky is blue"라는 문장이 되려면 8종류의 알파벳이 필요하다. 이 8종류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늘이 푸르다"는 말이 될 수 없다. 수와 용량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무한한 말을 만들 수 있다.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blue' 대신 많은 낱말을 대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에게도 성공하기 위한 성공조건이 있다. 우선 필요조건이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린 적이 없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충분조건인데 작품이 아름답고 놀라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딜롱 르동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한 눈을 가진 거인'은 이 필요조건의 충족을 느끼게 한다. 최초의 모더니즘 회화인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는 아름답고 온화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다. 하나 부연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술사적 용어로서 모더니즘은 인상주의의 태동 전후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1970년 대 초까지 지속된 미술 양식과 이념을 설명할 때 쓰인다.

부처님께서 정진할 때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마왕이다. 이 마왕에게는 세 딸이 있다. 갈애와 집착과 번뇌다. 물론 의인화해서 딸이라고 했다. 갈애·집착·번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속성이 있다. 이 녀석은 안팎노자도 없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언제나 무임승차뿐이다. 수행자는 철저한 승무원이 되어 그림자를 색출해야 한다. 나를 수시로 엄습해 오는 집착이고 번뇌이기 때문이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자는 볼품없는 대바라기가 되지 않고 대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

준령을 넘는 구름은 무겁다 생각하면 감량을 한다. 그러고 나면 먹구름은 흰구름이 되어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지 않던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어떻게 해?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수리아의 검-1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암흑 속의 두 소년⑦

칼키는 한숨을 크게 내쉬는 무니의 어깨를 툭하고 쳤다.

"하지만, 또 지금처럼 다시 움직이긴 할 거 아니야! 하여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놓자구. 수영은 할 수 있다고 했지?"

무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응!"하고 대답했다. 칼키는 격려하듯 무니의 어깨를 다시 한 번 툭툭 쳤다. 파라지타가 뿜어내는 향기가 점점 더 짙어지는 느낌이었다.

두 소년이 이제 막 탈출의 기회를 잡은 그 순간, 루드라는 카일라사산도 자신의 신전도 아닌 '우주의 물' 이라고 불리는 수메루 산의 계곡들을 뒤지는 중이었다. 이는 그가 막 얼음의 성으로 내려가 두 소년을 만나 보려던 그때 그에게 전해졌던 어떤 보고 때문이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루드라는 흔들림 없이 강력한 힘을 지닌 최고의 신이었으며, 좀처럼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찬가지였다. 그런 루드라가 자신이 행하려던 일을 접고 단숨에 수메루 산에 올라갔다면, 이유는 단 하나다.

"성가시게 하는 노인네군."

루드라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하얀 소, 난디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테드모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긍정의 표시를 하였다. 신이 아닌 존재에게 수메루 산은 견디기 힘들 만큼 강력한 기운을 발생하는 곳이었다. 그 힘은 지금 테드모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루드라가 힘들어하는 그에게 신의 술, 소마를 건네려던 참이었다. 문득 루드라의 세 번째 눈이 번쩍하는 광휘를 내뿜기 시작하였다.

무니가 파라지타의 움직임을 목격한 이후, 나무가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반들거리는 물빛 이파리들이 거대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였다. 칼키가 계속 밖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무니는 그가 며칠 전에 해준 탈출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고 있었다.

일단 괴로움이 없는 연못에 뛰어내리게 되면, 그들은 그 물부터 마셔두기로 하였다. 이 탈출 계획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 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극한의 추위라는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줄 수 있는지, 아닌 지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영을 하며 연못 주위를 둘러본 다음, 물이 조금이라도 나 있거나 보드랍게 눈이 쌓여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했다. 간수가 칼키에게 해줬던 말처럼, 땅 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리는 줄기가 존재한다면 그나마 그들이 탈출하기 가장 좋은 경로도 그 길일 것이다. 무니가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영원의 감옥을 빠져나가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이봐."

무니가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 칼키가 그를 불렀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야."

무니가 바깥을 내다봤다. 도저히 무엇인지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나무 덩굴처럼 보이는 것이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나무들이 서로 뒤엉킨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바로 파라지타의 뿌리 부분이었다. 칼키는 그 뿌리 부분부터 시작해 엄청난 두께의 줄기, 그리고 아래로 쏟아지듯 늘어져 있는 가지와 잎 부분까지 살펴보느라 창밖으로 몸의 절반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를 따라 역시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던 무니가 문득 몸을 돌려 자신이 며칠 동안 머물던 방을 바라 봤다. 아무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투명한 느낌까지 주는 얼음 색 벽, 천장 가운데 덩그러니 붙어있는 등과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이 복도와 방을 가로막고 있는 창살까지. 만약 그들이 이곳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여기 남아서 영원히 '있을 것' 이다. 언젠가 이 방에 들어올 또 다른 어떤 존재들도 마찬가지이리라. 어쩌면 무니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무니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다.

"저건 뭐지?"

무니의 말에 칼키 역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다.

"마히샤야!"

칼키가 놀라 외쳤다. 날개처럼 펼쳐진 붉은 망토와 태양빛에 번쩍이는 황금색 허리띠, 분명 마히샤 부대였다. 놀란 무니와 칼키의 시선이 마주쳤다. 파라지타는 점점 더 그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들이 뛰어내릴 수도 있을 만큼 가까이 올 것 같았지만, 마히샤들의 속도도 만만치 않았다. 창가에 파라지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며, 마히샤의 모습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지자 무니가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쩌지? 저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걸까?"

그러나 칼키가 뭐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순식간에 눈앞을 가렸던 파라지타가 사라지고 주위가 환해졌다. 마히샤의 형태는 아까보다 더 뚜렷이 보였으며, 그들이 향하는 방향도 얼음의 성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칼키는 당황하여 창밖으로 다시 몸을 내밀었다. 무니도 마찬가지로 몸을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 봤다. 나무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괴로움이 없는 연못 위에 멈춰서 잎과 가지를 담그고 있었다. 무니는 다시 하늘을 쳐다봤다. 마히샤는 더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칼키가 말했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먼 곳에 멈춰버렸어. 저대로 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삽화 · 김흥인

무니 역시 나무와 자신들의 거리를 가늠해봤지만, 마히샤들처럼 날지 못하는 이상 그 뿌리까지 뛰어내리기란 힘들어 보였다. 칼키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뱉으며 말했다.

"게다가 아무래도 저들의 목적은 우리인 것 같아."

두 소년은 펄럭이는 망토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마히샤들과 다시 멈춰버린 파라지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찌되었든 무슨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야 했다. 무니가 먼저 말했다.

"뛰어내리자!"

칼키는 눈을 번쩍 뜨며 무니를 쳐다봤다.

"어쩔 수 없잖아. 저들이 왜 오는지는 몰라도, 만약 저 나무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칼키는 다시 하늘을 쳐다봤다. 마히샤 중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알았어. 뛰어내리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시선을 교환했다. 칼키가 말했다.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

칼키는 뭔가를 가늠하듯 파라지타의 뿌리를 뚫어질 듯 쳐다봤다. 연못물을 빨아들이는 듯 파라지타는 서서히 팽창하고 있었고, 다행히 뿌리 역시 조금씩 얼음의 성 가까이까지 뻗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마히샤들이 저공비행을 하며 그들 앞에 확실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칼키는 무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파라지타를 향해 뛰어내렸다. 마히샤들은 예상치 않은 그 상황에 다들 멈춰서고 말았다. 무니는 그 틈을 타 칼키와 마찬가지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마히샤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붉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두 소년의 모습은 파라지타의 얽히고설킨 뿌리 사이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편, 제대로 뛰어내린 칼키와 달리, 무니는 뿌리 중에서도 가장 가는 부분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황에 처했다. 다급해진 무니는 눈으로 칼키를 애타게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까마득한 아래에 연못이 보였다. 원래는 나무를 타고 가다 연못으로 뛰어들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무니는 다시 한 번 몸을 아래로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윽고 그를 발견한 마히샤들이 더 많은 화살을 그를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다. 이미 그의 위치를 파악한 마히샤들의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연못을 향해 곧장 내려오기 시작했다. 무니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연못의 가장 자리 쪽으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그의 머리 위로 수십의 마히샤들이 붉은 망토를 펄럭이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무니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화살을 겨눈 채 멈춰 있었다. 무니 역시 어찌할 바 몰라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무리 중 하나가 먼저 무니가 있는 쪽으로 화살을 툭하고 쏘았다. 다행히 그 화살은 무니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파라지타의 가지 하나에 날아가 꽂혔다. 순간 무니가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고, 마히샤들의 화살 역시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화살이 이번에는 제대로 무니의 뒤통수를 향해 겨눠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 때 연못 아래에서 누군가 무니의 발을 끌어당겼다. 칼키였다.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던 무니는 물속으로 끌어 내려졌다. 그러나 화살은 무니의 심장 쪽을 정통으로 맞추고 말았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무니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잠수 중이었던 칼키의 눈빛은 놀라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가, 어느새 의식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이미 망토를 접고 연못 안까지 잠수해 들어온 마히샤들이 다시금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두 소년은 그대로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무니의 심장에서 피 대신 강력한 빛이 뿜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테드모가 무니의 몸에서 떼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조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마히샤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그 빛은 연못을 뚫고 나와 파라지타의 나뭇잎까지 태울 정도였는데, 이윽고 커다란 장을 형성해 무니와 칼키를 보호하듯 에워쌌다. 잠시 후 두 소년의 몸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부 끝〉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불교 전통의례 수강생 모집

안채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일용의식의 정착과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의 계승 · 복원 · 발전을 위해 전통 의례를 전승할 뜻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교 수 진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장 동주원명
_ 불교 의식 전공 이수자
_ 불교 의식 및 음악학 관련 박사학위자

● 교육내용 1. 일용 권공 의식(상용의식 · 상주권공 · 안채비 · 홑소리)
2. 의식진행을 위한 법구 연주(금고 · 태징 · 법고 · 호적 및 장단)
3.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영산재 · 수륙재 · 예수재 · 시왕재)
4. 한국 불교 전통 의식무(바라무 · 법고무 · 나비무)

▮ 자격기준 _ 비구 · 비구니
▮ 교육기간 _ 이수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 개 강 _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 교육일시 _ 매주 1회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_ 2011년 3월 2일(수요일) 오후 2시 홍원사 교육관

주관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 · 범패 · 작법 보존회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홍원사 02) 2658-3100

스님이 직접 만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生食

무상사 성일 스님 만드는 생식 '스님이 만든 생식'



맛을 중요시하는 시대다.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그 동안에 써오지 않았던 조리법이 총 동원돼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밥상에 올려진 음식은 강한 향과 다양한 색깔로 본래 재료가 무엇인지 추측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음식은 '자연과 영양'이 아닌 '오락의 상품'이 된 것이다. 음식이 가진 본연의 생명력이 사라진 밥상. 죽은 음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대안이 바로 생식(生食)이다.

생식은 글자 그대로 불에 익히지 않고 원재료를 있는 그대로 섭취한다는 뜻이다. 생식을 할 경우 식품 효소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가열이나 가공을 했을 경우 식품의 효소는 파괴된다.

생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의 파괴가 없

生食,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스님이 만들어 믿을 수 있다

을 뿐만 아니라 장내에서 각종 독소의 발생이 없어서 혈액이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깨끗해진 혈액은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신체의 각 세포로 보내어 장기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식을 해야 할까. 생식의 원재료는 화학약품이나 더러운 농업용수에 오염되지 않고 싱싱하게 재배된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섭취하는 만큼 그만큼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여야 한다.

불교에서는 수행식으로 일종의 생식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소식할 수 있는 생식은 엽록소, 효소, 비타민, 미네랄, 씨눈, 섬유질 등이 그대로 살아있는 영양식으로 당뇨 및 혈액장애환자 등에게 좋다. 고른 영양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에게 최고의 자연건강식이다.

· 원료 및 함량

발아현미8.71%, 찹쌀현미8%, 포도당, 발아밀6%, 발아보리6% 알파현미, 현미쌀눈4.48%, 검은콩4%, 바나나(수입필리핀), 자일리톨4.2% 흑미3%, 백태3%, 사과효소0.2%, 옥수수, 율무, 소맥배아2%, 호박, 시금치, 땅콩, 감자, 저염다시다, 고구마, 당근, 미나리, 검은깨, 기장, 무청, 솔잎, 무, 다시마, 칡, 유자, 사과, 메밀, 수수, 쑥, 들깨, 팥, 부추, 양배추, 둥굴레, 미역, 파래, 김, 맥아, 밤, 마, 연근, 영지버섯, 우엉, 표고, 버섯, 녹차, 신선초, 감잎, 어성초, 브로커리, 뽕잎, 대추, 도라지, 유산균-이상 국산), 감초(수입 중국)

스님이 만든 효소참생식은 발아곡류 4종 20.17%, 사과효소 0.2%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생채소 25.17%, 현미쌀눈, 소맥배아 6.48%, 해조류 5종 3.82% 등 이상의 재료로 연구 개발했다.

· 복용법

1일 1~3회, 1회에 1포(40g)를 생수 250ml에 타서 먹는다. 기호에 따라서 생수의 양은 조절할 수 있으며, 두유, 우유, 야구르트 등에 타서 드시거나 꿀을 넣어 드셔도 좋다. 1일 1끼 1포(40g)×60포(2개월분) 100,000원



•한약재가 듬뿍 들어있는 효소참생식

생식의 명품선언, 효소참생식은 62여 가지의 유기농, 곡류,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 외 한약재가 들어있어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전한다.

생식의 효능을 한단계 높인 효소참생식은 화식으로 인해 탁해진 피를 정화하고, 정신을 맑히고, 육신을 가볍게 하여 수행정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다.

"생식은 단순한 식사 대용에서 건강식, 또 수행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 그리고 수행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굳이 경전에만 있다고 생각지 않아 이 길을 택했어요."

운문사와 중앙승가대를 나온 성일 스님. 스님이 생식을 만들게 된 이유는 스님이 직접 생식의 효과를 보면서 부터였다. 건강이 좋지 않아 치유방편으로 생식을 하게 된 스님은 생식을 주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포교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시중에 기존 수행식이 선식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했지만 곡류로만 만들어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느낀 스님은 각종 한약재와 해조류, 버섯류 등을 첨가해 독특한 생식을 개발했다.

스님은 '스님이만든생식'의 장점을 크게 세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마음의 욕심이 없어진다**. 둘째는 **머리가 맑아진다**. 셋째는 **맛이 없다**는 것이다.

'스님이만든생식'은 곡류가 90%인 일반 생식과는 달리 곡류의 함량은 4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현미를 비롯해 17 종류의 곡물과 녹색, 담색, 황색채소 22종류와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등 열 가지 이상의 청정재료가 들어간다. 스님이만든생식은 고소한 맛 등을 내기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순수한 건강식이다.

이 때문에 스님이만든생식은 각 선원에서 효과를 맛보고 수행식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생식으로 인해 얻는 다이어트 등의 효과도 당연하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 두 끼 2~3개월 먹으면 5kg의 체중이 줄게 되고, 5~6개월이면 10kg이 감량된다.

스님은 "생식을 하면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 겠다는 욕심이 줄어든다"며 "부처님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 자연을 헤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생식"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일까. 성철 스님, 송암 스님 등 역대 큰 스님들도 생식으로 무욕의 생활을 체화했다.

시중의 일반 업체에서 만든 상품에 비해 가격도 절반에 불과하다. 스님이 직접 재배하고 관리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영업마진 없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신도들의 얼굴만 바라 보는 불교에서 생활화에 앞장서 사회에 환원하고 문화를 이끄는 불교가 되도록 이바지 하

마음의 욕심 제거

머리를 청명하게

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사업을 관리하는 무상사를 장기적으로 요양원으로 개축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회향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의 희망을 안고 무상사의 하루는 저물어 갔다.

사업자번호 : 620-10-88677
통신판매업신고증 : 제2010-울산중구-0128호
전화번호 : (070)7629-5920



•곡류 50%를 발아시킨 효소발아생식

효소발아생식에는 56종의 곡류,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가 들어있고 또 발아 제품이 50%나 들어 있다. 사과효소, 현미 1분도 등 발아제품의 영양을 그대로 우리 몸으로 전하며 맛과 영양에 있어 일반 발아생식과는 차별화시켰다. 건강을 위한 여성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하는 건강식이다.

· 원료 및 함량

알파현미(17.3%), 발아현미(13.2%), 발아보리(12%), 발아찹쌀현미(10%), 밀의눈(8%), 현미쌀눈(5.44%), 발아밀(5%), 보리순(5%), 사과효소(0.2%), 율무, 백태, 흑태, 검정쌀, 볶은소금, 팥, 약콩, 조, 수수,쑥, 표고버섯, 고구마, 메밀, 들께호박, 시금치, 미나리, 브로커리, 양배추, 연근, 당근, 감자, 무청, 녹차, 케일, 솔잎, 산수유,감잎, 두충잎, 마, 뽕잎, 신선초, 저염다시마, 김, 미역, 톳, 사과, 유자, 밤, 유산균,포도당, 크리마, 자알리톨, 프락토올리고당(이상 국산)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외국산)

· 내용량

40g(1포), 발아현미를 비롯한 3종의 발아곡류 40.2%, 현미쌀눈, 밀의눈 14.44%, 사과효소 0.2%, 이상의 재료로 연구 개발하였다. 스님이만든발아생식은 곡물의 씨눈인 현미쌀눈, 밀의눈 13.44%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발아곡류를 사용하여 소화가 잘 된다. 곡류가 발아되면 먹을 때 부드러워 체내에서 소화 및 흡수율이 높아진다.

· 복용법

1일 1~3회, 1회에 1포(40g)를 생수 200ml에 타서 먹는다. 기호에 생수의 양은 조절할 수 있으며 두유, 우유, 등에 타서 드시거나 꿀을 넣어 먹어도 좋다. 1일 1끼 1포(40g)×60포(2개월분) 100,000원

생식, 이래서 좋다!

● 하나. 체내의 노폐물, 독소 등을 흡착, 배설시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노폐물이 잔류되지 않아 장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피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 둘. 곡류, 채소류의 껍질 부분에 다량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이소플라본, 카테킨, 사포닌 등 식물내재 영양소가 풍부하여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면역력 증강 효과가 뛰어나다.

● 셋. 화식에 비해 인체 내 에너지 효율이 6배나 높아 적은 양으로도 영양공급이 충분하다.

● 넷. 인체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섭취가 가능해 효소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대사효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지는 것. 수험생, 직장인등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

● 다섯. 곡류를 통 곡식으로 섭취할 경우 곡류의 씨눈에 함유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苦)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님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10점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대불성지공원건립 발원

불법을 배울 수 있고! 인성을 바로 할 수 있으며! 심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삼존대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좌상을 테마로 한 공원 건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불사에 뜻을 두고 계신분이나 불사목적으로 토지 (실소요면적 약 6만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시기를 원합니다.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2.1m
조계사 2만불 조성 (석가아미타사불, 관음지장보살) 17×15×24cm

“돈은 물처럼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硏 양정연 연구교수 타이완 싱윈 선사 불교 경제관 조명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기도 한다. 누구는 돈 이야기에 한숨부터 쉬지만, 누구는 돈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영유한다. 불교에서는 돈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존재라 말한다. 황금이 독사일 수도 있지만 도(道)를 닦고 법(法)을 전하는 자량(資糧)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중점연구소 양정연 연구교수는 〈인간불교의 경영과 실천〉을 출간해 불교의 경제관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인 타이완 포광산(佛光山)을 창건한 싱윈 선사의 경영 원칙과 체제를 바탕으로 재가불자들이 지켜야 할 경제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967년 싱윈 선사는 타이완 불교의 총본산인 포광산을 건립했다. 포광산은 12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소속 스님만 2000명, 신도 수만 100만 명에 육박한다. 또한 세계각지에 200개에 달하는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포광산은 단지 규모면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다. 양정연 교수는 싱윈 선사가 이런 대규모의 사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불자들이 어떠한 경제관을 지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건설해 갈지를 설명하고 있다.

포광산의 경제관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혜로서 금전을 대체한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며, 사찰의 경우 반드시 출가자가 머무르는 사원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한이 있는 자는 금전을 관리할 수 없고 금전을 관리하는 자는 권한이 없다. 돈과 권한의 분리를 재무관리의 준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승가에 귀속되고 물질은 균등하게 나눈다. 네 번째는 신도에게 저축한다. 다섯 번째는 여러 집안의 밥을 먹되 한 집안의 밥을 먹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신도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함부로 보시를 청하지 않는다.



포광산에서는 여러 집의 밥을 먹되 한 집안의 밥을 먹지 않는다. 보시를 받더라도 적은 돈을 여럿에게 받는 것이다. 사진은 2010년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스님들이 탁발 시연을 하는 장면 (현대불교 사진자료)

포광산은 청정한 재산이 없다면 청정한 법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개념이다. 불교에서 금전은 시방(十方)에 와서 시방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중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잘 사용하려면 재산에 대한 건전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재산을 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그러나 재산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으나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하듯이, 선(善)한 인연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인연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돈이 제 아무리 많다 해도 언젠가 다 써 버릴 날이 온다. 중국에는 “백만금의 재산이 한 가지 기술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배워 익힌 기술 하나가 그 어떤 재산 보다 나으며, 반야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돈보다도, 기술보다도 더 좋다는 뜻이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사구게를 수지한다면 그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법 보시의 경우 적더라도 그 공능(功能)이 무궁함을 말한다.

재산은 얻는 것 보다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돈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재산을 운용해야 하는가는 우리 생활에 더욱 중요한 과제다. 〈잡아함경(雜阿含經)〉에는 “한 몫은 먹는데 쓰고, 두 몫은 살림에 쓰고, 나머지 한 몫은 간직해 뒀다가 곤궁할 때 대비한다”라는 말이 있다.

돈을 아무리 번다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은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알 수 없다. 천재지변, 질병, 도둑으로 부터의 강탈, 불효한 자식의 재산 탕진 등 돌발 상황들은 축적된 재산을 잃게 만든다. 불경에서 이를 일컬어 재산에는 오가(五家)를 공유한다고 말한다.

싱윈 선사가 30여 년 전 대중들에게 설파한 경제개념들을 중심으로 번역된 이 책은 앞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새로운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인간불교의 경영과 실천 | 싱윈 편저 | 양정연 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중국 정원에는 선사상 담겨 조경학자가 본 원림문화



원림 | 박희성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1만8000원

선종은 중국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선종은 당·송대 사대부의 문화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른바 선취(禪趣)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정원을 원림(園林)이라 부른다. 저자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박희성 연구교수는 선종이 중국문화에 많은 영향을 줬듯이, 중국의 원림문화에도 어떤 기여가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을 두고 원림에 대한 사의적 가치를 밝히고 있다.

조경학자인 박희성 교수는 ‘중국의 원림문화는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통해 원림을 이루는 사상과 배경을 파헤치지 시작했다.

당·송 시대의 사대부는 현실 모순의 해결점을 유가와 도가로부터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현실이 곧 이상이라는 선(禪)의 가르침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현실과 이상의 갈등 해소를 선종으로부터 얻었다.

당·송 이전의 원림은 가사 노동과 생산 활동, 그리고 유희로서의 기능적 역할만 해왔다. 그러나 당·송대를 거치면서 사대부가 시·서·화의 예술이론을 산수원림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원림은 기타 문예작품과 동등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른바 ‘시적 정감과 그림의 정취’라는 원림의 정신이 생겨난 것이다.

박 교수는 중국 원림의 공간 구성과 형태의 연원을 찾기 위해 당·송 시대의 원림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림을 만든 시대와 사람들을 주목했다. 당·송대를 전반적으로 개괄하는 시대연구와 사대부 탐구를 통해 사대부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종과 불교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박 교수는 안과 밖이 밝은 돈오와 돈오의 삶을 살려고 한 사대부, 또 그들이 풀어놓은 원림의 함의를 통해 산수원림의 경계 없는 경계를 밝히고 있다.

사대부들은 선으로 의경을 완성하고 능동적으로 살았으며, 경계에 자유로워 높은 정신세계를 향유했다. 그들이 머물고 행하는 모든 곳은 원림이었다. 당·송대 사대부는 경계 없는 원림, 경계 없는 자연산수에서 선으로 차를 마시며 시를 읊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중국 고전원림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책은 단순히 선취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원림을 하나의 조경 모델로 차용할 수 있도록 조경학적 지식도 소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6~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불광출판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7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8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야샨티	정신세계사
9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10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

계·정·혜 삼학의 가르침에 의지한 팔정도와 육바라밀 당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의 유훈을 찾아볼 수 있는 경전은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반니원경(般泥洹經)〉〈불본행경(佛本行經)〉〈유행경〉〈불소행찬〉〈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수반열반략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이하 〈유교경〉)은 오로지 부처님의 유훈만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최근 효관 스님은 〈유교경〉에서도 출가제자들을 위한 유훈만을 특별히 정리해 〈유교경 연구〉를 출간했다. 효관 스님은 진수정원(晉水淨源)의 〈불유교경론소절요(佛遺教經論疏節要)〉와 운서주굉(雲棲株宏)의 보주(補註)를 번역해, 〈유교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또한 〈불소행찬〉과 〈유행경〉 및 빨리어본 〈대반열반경〉 등 다양한 경전들과의 연관 관계를 고찰해 불교 전반의 교학 이해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방증 자료를 인용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유교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이르러 경계해야 할 가르침을 간략히 설한 경전이다. 〈유교경〉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말씀이 더해지진 않았다. 부처님은 평소 늘 하시던 법문을 입멸하시기 전까지 한 번 더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여래의 법에서 스승이 특별히 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스런 가르침은 없다’는 경전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다.

〈유교경〉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강조한 짧은 법요(法要)이다. 부처님이 〈유교경〉을 설하신 장소는 구시나라(拘尸那羅)의 사라쌍수 아래로, 열반에 드시려 할 때는 고요한 한밤중이라 소리조차 없었다고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 청정한 계를 지키며, 마음을 다스려 삼독과 오욕의 번뇌를 억제하고, 음식과 수면을 조절해 성내거나 교만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소욕(小欲)·지족(知足)·원리(遠離)·정진(精進)·불망념(不忘念)·선정(禪定)·지혜(知慧)·불희론(不戱論)의 여덟 가지 공덕을 잘 닦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유교경연구 | 효관 역주 | 불광출판사 | 1만7000원 이은정 기자

바른정법.바른인연 II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써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 (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써 경전과, 천수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데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키 위해 구병시식, 천도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재를 지내보니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대 중 일 동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욕바라, 신중작법봉청39위, 욕건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 주 :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Ⅰ) 시왕초 등긋기	• 불화기초(Ⅱ) 보살초 등긋기 사천왕초 등긋기	불화 그리기 불화실습(Ⅰ,Ⅱ)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 주 : 혜경스님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사항
■ 개강일시 : 2011년 3월 3일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종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 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구석구석에 담긴 가르침의 부호 샅샅이 읽으며 '수행'

절집기행을 떠나며

'현대불교'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부터 격주(隔週) 단위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을 떠나게 되어 기쁩니다. 절집을 찾아가는데 어떤 단서가 붙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없진 않지만, 굳이 '행복을 찾아가는'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절집에 가면 행복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아주 크고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절집은 법이 머무르고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닦는 곳입니다. 절집은 과거의 집도 아니고 오늘의 집도 아니고 미래의 집도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집입니다. 절집의 구석구석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미어 있고 절집의 여기저기에 과거 수많은 스승들의 지극한 수행 흔적과 뭇 중생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절집기행 그 자체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진관사 추녀끝 풍경은 일몰의 황홀한 광경을 노래한다.

지혜장과 나팔수 부부 따라가기

절집기행은 가상의 부부인 아내 지혜장과 남편 나팔수씨를 따라 전국의 사찰들을 기행 하는 구조입니다. 지혜장은 불교신행을 오래한 40대 중년쯤의 불자이고 남편 나팔수씨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 기울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 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부는 이 시대 많은 불자님들의 자화상일 겁니다.

이 부부는 절집을 찾아다니면서 절집에서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더러 단체기행을 가기도 하고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가기도 하면서 절집의 구석구석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부부를 따라가면 우리도 어느새 절집에 드러난 불교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 전 쯤, 사찰 답사가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룹답사보다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하고 소감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당시 사찰답사를 주도하고 안내했던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길이 지금은 없어졌고 그때는 없던 건물들이 지금은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성보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때 안내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들도 아직 부지기수로 남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절집인들 고정되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사찰마다 '불사 바람'이 불어서 뜯어 고치고, 넓히고, 새로 지으며 절집의 지형도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절집을 오늘의 감성과 시각으로 공부할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석구석 스민 교리 배우는 행복

절집기행의 가장 큰 행복은 절집에 드러난 가르침을 읽는 것입니다.

절집은 그냥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살기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수행과 교화라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절집의 기본 구조와 다양한 장엄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담는 상징부호들입니다. 법당이라는 건물, 그 안의 수미단, 그 위의 불상, 그 뒤의 탱화, 그 속의 내용들. 이렇게 법당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한 권의 교리 서적이 됩니다.



절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절집에 스민 불교를 공부하는 모 부부의 모습.

절집의 구조와 드러난 상징부호들을 통해 드러난 가르침을 읽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도 그저 "절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절집 그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설명해 주는 스님이나 포교사들도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찰 건축이 현대화 바람을 타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상징 기능까지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절집의 진면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절집에 스민 역사를 읽으면 행복합니다.

절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절집의 구석구석에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절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절집의 그것으로 용해되어 있으니 절집을 찬찬히 읽으면 책에 나오지 않는 역사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멸하고 시대는 변화를 거듭하지만 절집에는 그 잔잔한 숨결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왕에서 무명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절집을 찾아 왔고 항상 문을 열어두었던 절집에는 그들의 애환과 그들이 이룩한 문화예술이 켜켜이 스미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을 읽는 일은 불자와 비불자를 구별할 일이 아니고, 이 땅에 몸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절집에서 우리 역사의 숨결을 읽는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몸은 오늘의 것도 어제의 것도 내일의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미타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절집기행의 화두다. 부석사 무량수전.

절집에 승화된 예술을 느끼는 것도 행복입니다.

절집은 역사만큼이나 분명한 예술의 전승기능을 합니다. 절집에 반영된 가르침과 역사 그 자체가 최고의 예술적 형상으로 승화되어 전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전래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진 유형과 무형의 불교예술은 책이나 문서와 더불어 절집의 조형

오랜 세월의 흔적 담은 절집
민족의 숨결·역사가 스민 곳

들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의 양식과 가람의 배치, 불탑과 승탑(부도) 등 석조물의 양식적 변화, 회화의 양식과 기법 변화, 영산재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 내역 등이 절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집을 보면 예술이 보이고 그 예술의 맥박은 바로 우리들의 혈맥을 뛰게 하는 우리의 맥박입니다. 절집을 읽으면 내 맥박의 박자를 느끼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절집에 투영된 '나'를 읽으면 행복해 집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화가 날 때 '머리 깎고 절간에나 갈까보다'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는 왜 깎고 절간에는 왜 간다는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세간의 고통스런 삶을 떠나 출세간의 구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 하는 겁니다. 뭐, 더러는 절간에 가면 무위도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동경심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세간 사람에게 있어 절집은 삶의 고난을 정화시켜주는 장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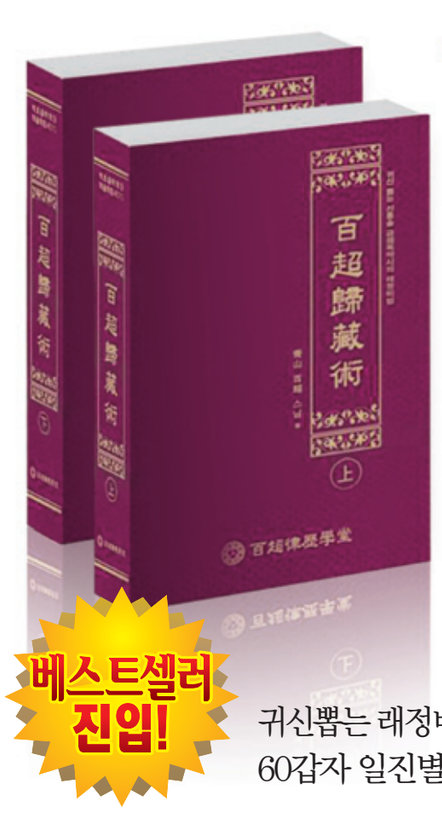
절집 기행은 막연한 동경심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절집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가르침과 역사와 예술의 향기가 어제의 나를 느끼게 하고, 오늘의 나를 보게 하고, 내일의 나를 구축하게 합니다. 절집에 투영된 나의 진면목을 읽는 순간, 더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절집을 기행 하는 동안 행복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절집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비쳐주는 거울이고, 일상에 지친 몸을 재충전시켜주는 대용량 발전소입니다. 수행자에게는 깨침의 동력을 만들어 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신심과 원력의 힘을 길어 올리게 합니다. 죄를 참회하는 사람에게는 새 삶의 힘을 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취의 신념을 심어줍니다. 절집 구석구석을 이해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채워지는 활기(活氣)를 느끼게 됩니다. 무한의 에너지가 몸을 채우고 마음을 뜨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절집에서 듣는 풍경소리, 툇마루에서 느끼는 바람결, 한 모금의 시원한 석간수, 청량한 독경소리, 천둥 같은 법문, 조붓한 숲길과 신령스러운 기암괴석들. 이 모든 것이 중생을 향해 베풀어 놓은 무량한 공양인 것입니다. 그 공양을 맛있게 먹으려면 절집기행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도가 무슨 물건이라도 된 줄 아느냐. 왜 닦으려고 하느냐”

황벽사2



황벽 선사의 법력으로 난폭한 호랑이가 유순해졌다는 전설의 현장이 된 호포천

허름한 황벽사를 보자 눈가에 뜨거운 것이 돈다. 절이라기보다는 창고 건물에 가깝다. 건물 안도 1960년대에 보았던 서커스단의 가설무대 같다. 그러나 흙바닥에 예불방석들이 반듯하게 놓였고 정갈하게 청소된 상태로 보아 전등(傳燈)의 불이 꺼진 것 같지는 않다. 법당 정면에는 황벽 선사의 선어록인 〈전심법요(傳心法要)〉라는 글씨가 주련처럼 크게 쓰여 있다.

법당 옆 건물에 사는 아낙네가 코흘리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순례자를 맞이한다. 낯선 사람을 본 아이가 엄마 치마 뒤로 숨는다. 아이가 복전함으로 보여 중국지폐를 내밀자 방긋 웃는다. 돌로 만든 사각 향로에 향을 꽂고 난 뒤 합장을 한다. 아마도 옛 황벽사에서 사용했던 향로이리라. 향로 너머로는 논밭 가운데 중창 불사 중인 대웅전이 보인다. 주지스님은 출타중이라고 한다. 조랑말 한 마리가 대웅전 앞뜰에서 풀을 뜯고 있을 뿐이다.

배휴·황벽 선사에 깨달음 구한 뒤 선사 말씀 〈전심법요〉에 담아

아낙네에게 지금의 저 가설무대 같은 건물이 원래 법당이냐고 묻자, 옛 법당은 오래 전에 스러져 버렸고 문화혁명 때 홍위병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창고처럼 법당을 지었다고 한다. 아낙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황벽촌 사람들의 불심이 대단하다. 옛 흔적을 안내해 달라고 하자, 우물과 건물 벽에 붙은 작은 비문을 가리킨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황벽사의 원래 이름은 영취사였다. 희운 선사가 이 사찰에 머문 뒤에 자신의 고향인 복건 복청의 황벽산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사찰 이름을 황벽사로 고쳤다. 1000여 년 이래 황벽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문화혁명 기간에 심하게 훼손되어 지금은 절터와 무너진 벽의 일부만 남아 있다. 벽돌 위에 영취사라는 글자의 흔적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명·청대 때만 해도 황벽사의 규모는 대단했던 것 같다. 황벽촌 뒷산에 조성된 묘탑들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훼손이 덜 된 황벽사 37세와 38세의 묘탑들은 방장급의 위의를 드러내고 있고, 당시 사격(寺格)이 임제종 본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황벽사가 융성한 계기는 황벽의 재가제자 배휴의 막후지원이 절대적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황벽 선사와 배휴의 만남은 당 무종 회창 2년(842)에 배휴가 종릉(홍주 남창 부근의 도시) 관찰사일 때 용흥사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당 선종 대중 2년(848) 완릉(안휘성 무호 동남쪽의 선주) 개원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홍주 개원사(대안사, 완릉 개원사와 다름)에서 배휴가 황벽의 한 마디에 깨달음을 이룬 뒤 재가제자가 되어 더욱 인연이 깊어진다. 배휴가 깨달음을 이루는 기연(機緣)의 선화가 〈전심법요〉나 〈선문염송집〉에 나온다.

황벽 선사께서 일찍이 대중을 흩으시고, 홍주 땅의 개원사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상공 배휴 거사가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그 절의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중국의 절에는 조사와 고승들을 벽화로 그리는 전통이 남아 있다. 절의 회랑이나 법당 벽에 그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절과 인연 있는 고승들입니다.”

“고승들의 얼굴이 그럴듯하구려. 그럼, 이 고승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지스님이 아무런 말도 못했다. 배휴가 말문이 막힌 주지스님에게 다시 말했다.

“이 절에 선승은 안 계십니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마침내 배휴는 황벽 선사를 청하여 뵈었다. 배휴는 황벽 선사에게도 조금 전처럼 물었다.

“얼굴이 그럴 듯한 이 고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때 황벽 선사가 큰소리로 배휴를 불렀다.

“배휴!”

배휴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예.”

“어디 있는고.”

배휴는 황벽 선사의 말끝에 단박에 깨쳤다. 그런 뒤 제자로서 예를 갖추어 황벽 선사에게 개당설법을 청하였다.

이와 같이 재가제자가 된 인연으로 배휴는 황벽 선사의 법문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심법요〉이다. 참고로 ‘단박에 깨쳤다’라는 〈전심법요〉의 기록을 보고 하근기의 보통사람들이 의아해할까 봐 부연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깨침이 이루어진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의심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쥔 관찰사로서 체통도 접어둔 채 아침저녁으로 법을 구하러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몰록 깨쳤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전심법요〉는 선의 개론서 선사상 이해하려면 꼭 봐야

한편, 〈전심법요〉의 가치를 성철 스님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본다.

‘구사하고 있는 언어들이 간명하고도 평이하며 격외언구의 고준한 말들을 사용치 않으면서도 선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개론서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조계정전의 정통 선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긴요한 어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계의 원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전심법요〉를 통한 황벽 스님의 문정(門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심법요〉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황벽 선사의 법문은 명쾌하고, 개오한 배휴의 문장이므로 이해하기가 쉽다.

배휴가 물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가 무슨 물건이라도 된 줄 아느냐. 왜 닦으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제방의 종사들이 서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참선하여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둔근기(鈍根機)를 이끌어 주는 말일 뿐이다. 그러니 의지할 것이 못 되느니라.”

“둔근기를 위한 말이라면, 상근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합니까.”

“상근기라면 어찌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도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거늘. 더구나 따로 뜻에 합당한 법이 어디 있겠느냐. ‘법이 무슨 모양이더냐’ 고 한 경(經)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리만 된다면 마음의 힘이 덜게 되는 것이니라.”

“온통 끊어져버려서 없다는 것도 당치 않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없다 하였으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너는 찾으려 하느냐.”

“스님께서는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지 않으며 그 자리는 바로 쉼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느냐.”

“이 법은 곧 허공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허공이 언제 너더러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내 잠시 이렇게 말하니 너는 당장 여기에 알음알이를 내는구나.”

“사람들과 더불어 알음알이를 내지 않음이 마땅한 것입니까.”

“내 너를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거니와, 요컨대 알음알이란 뜻(情)에 속한 것으로서 뜻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게 되느니라.”

“여기에 있어서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는 선문답들인데, 배휴가 깨달음의 인연을 깊게 만들어가는 종릉과 완릉 시절에 물었던 도(道)에 대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답을 모아 기록한 까닭은 어떤 의도가 있는 듯싶다. 〈전심법요〉의 서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도 같아 요약해서 소개해 본다.

‘내가 회창 2년 종릉에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산중으로부터 스님을 고을로 모셔 용흥사에 계시도록 하고 아침저녁으로 도를 물었으며, 대중 2년 완릉에 관찰사로 재임할 때에 다시 가서 예로써 맞이하여 관사에 모시고 개원사에 안거하시도록 하여 아침저녁으로 법을 받아 물러 나와서 기록했는데, 열 가운데 한둘밖에는 얻지 못했다.

이를 마음의 인장(心印)으로 삼아 차고 다니면서 감히 드러내어 발표하지 못하다가, 이제 신령스런 경지에 드신 그 정묘한 뜻이 미래에 전하여지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여기서 ‘열 가운데 한둘밖에 얻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은 더 큰 공부의 인연을 지어가는 배휴 자신의 심사를 고백한 글이 아닐까. 거꾸로 말하자면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공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심법요〉를 기록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선의 개론서’라고 한 성철 스님의 평은 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황벽사에 가장 확실하게 남아 있는 유적은 호포천(虎鉋泉)이다. 호포천은 지금도 황벽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샘이며, 황벽 선사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현장이다. 황벽 선사가 주지스님으로 와서 황벽사 대중들과 마을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불법으로 굴복시키고 석산(石山)의 강한 기운을 눌렀다는 전설이다. 황벽 선사의 법력으로 유순해진 호랑이가 선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는 선사의 묘탑 앞 돌에 부딪쳐 죽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호포천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이다.



문화혁명 때 홍위병의 눈을 피해 황벽촌 사람들이 창고 형식으로 지은 황벽사 법당.

어떤 난폭한 사람이 황벽 선사의 법력에 감화되어 불법에 귀의한 사건이 전설화되면서 호랑이로 둔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황벽 선사의 위신력(威神力)인 것 같다. 그런데 황벽 선사의 묘탑은 호포천 전설과 달리 샘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는 산자락에 있다고 황벽촌의 한 청년이 알려준다. 30세의 유환연(喻煥然)이라는 순박한 청년인데 친절하게도 앞장을 서준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禪 여행
아제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봉원묘선사 무상선사

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
• 출 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 동참금 : 1,690,000원 / 1인

대혜종고 / 고봉원묘선사 천목산 4일
• 출 발 :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
• 특 전 : 890,000원 / 1인

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 출 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위대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탄생에서 열반까지 근본화두와 함께 떠나요~
• 출 발 : 2011년 3월 8일
• 동참금 : 2,390,000 (팁불포함)

*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
– 앙코르와트, 바푸온사원의 전설
– 3월 11일 / 990,000

* 실크로드&불교로드 7일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 / 1 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방콕 8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방콕
– 4월 14일 1,990,000

* 구화산 / 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 성취, 영험 도량

각종 난치병, 치매,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수강생 모집
체계적인 이론! 최고의 적중률!
일용백사에서의 폭넓은 활용성!
수강신청 02)2260-3728 동국대
강좌문의 02)816-2115 이우산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본과)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구, 해동사)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전통 범음 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물,바라,나비무,화청,천도재,49재,
점안식,수륙재,영산재,상담학
각 사암 행사전문.
선착순 무료강의 모집
031)953-3328
010-8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조상영가천도와 축혼제(畜魂祭)
• 일시 : 2011년 4월 27일
부산국제신문사대강당
조상영가천도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강문홍,조갑연,강병국,강병철,진현주
010-3871-2398
후원 : 동양당한약방(경남 산청군)

사주(명리) 지도하여 드립니다
사주(명리) 배우느라
고생하신 분,
문의하여주십시오.
개인지도, 그룹지도하여 드립니다.
스님, 교임포교사 환영합니다.
010-8606-6151 현인 스님

천도재 및 각종의식
최선을 다하여
집전하여 드립니다
– 법문, 바라, 나비춤, 살풀이–
사찰 행사 전문
010-3772-5431

수 강 생 모 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 지어
짧은세상 어렵게 살지말고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1억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다
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노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학,궁합,택일,
성명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범종 판매
• 구입시 150만원 판매가 80만원
• 높이 64cm, 둘레 130cm, 두께 3cm,
좌대높이 113cm, 길이 68cm
• 색상 : 붉은 감색
• 소리양호
018-406-3073

전통의약 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
010-6285-370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법당보살
공양주 모십니다
010-2828-0664
▷개원사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부모님 동의로
10세 이상 동자로 살아갈
인연을 받습니다.
현재 동자스님 3명,
모집인연 3명
011-9393-496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보리사

명리학 무료 특강
사주,궁합,택일,성명학
초급 3개월 완성
한문 모르시는 분 한자교육
명심보감 사서삼경 특강
남녀 단체 환영 (수양하실 분 기숙가능)
상도서당 명리원
043)852-1952
011-2090-800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40~50대, 부산
011-567-2626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부산 동래구
051)558-8830

사무실 직원
(숙식가능 자) 구함
미국 LA사찰에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절 운영하실
비구님 스님
모십니다
063)543-5551
010-4427-2256

가족같이 같이
계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10-8934-6058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법당, 공양실,
거사, 보살님
도와주시는 분 모십니다
▷부산
051)256-3483

남녀 재가불자
공부하실 분
조건없이 배려
하겠습니다
김해 효운사 055)342-0379
011-856-4578 (효운 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옴훔훔마니달리훔타칙
• 아주 특수한 기도법
승려에 한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동양철학 천지명리 제14기 수강생모집
자연이치학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에 결부한 하도락서 진수를 알리는 타 철학추종을 불허하는 천지명리학 학문으로써 관심있는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타 명리를 접하였으나 이해가 잘안되고 임상이 안되는분 환영합니다. 승가로부터 전해오는 비법입니다.
• 명리학 :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연구반
• 부 설 : 풍수학 과정 타로학 과정
*스님은 수강료 반액 할인우대
수료시는 명리학사자격증 수료증 회원증 수여함
철학관운영 및 사암스님, 연구과정수료자는 강사자격증 수여함

천지명리학회 한국본부 진광불원 강의 : 학회 회주및 학장 법상스님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424-10 망미역4번출구
051)758-3599 휴: 010-3583-3556
http://www.sajucall.com (사주콜) E-mail:jkcho2002@korea.com

신심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미만, 천안
010-3140-36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부천 상동
출퇴근 / 파트타임
032)325-6085
010-4501-6940

포교당 주지스님 모심
• 50세 전후 • 조계종
• 승려증 및 이력서 지참
• 보수 : 면담시 결정
재송포교당 051)782-0033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청다오 ,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大韓佛教謁平僧伽會
弘法과 救濟中生의 참 모습을 보일 慶州李氏 승려로 宗團
구분없이 一家 스님들을 會員으로 모십니다.
많은 동참으로 자성의 죽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佛紀 2555年 2月7日
初대會長 萬翁 道一 (전 해인사 주지)
연락처(수석 부회장) 弘山 玄佛 (禪農敎團 총재)
041)943-7620 / 016-850-12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0년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승복관련 기술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의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숙식제공 가능)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사 : 27평, 30평
- 부지 : 25,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인천
- 법당 : 5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20평(사용평수 150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공기좋고 조용한곳
- 3층건물 (건평 95평)
- 대지 80평
- 가액: 3억 6천만

010-8640-6633

부 처 님 자 리
(참선방 요양원)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변역 잠실역 1시간 內거리
- 평수: 3000평, 4000평, 5000평(선택)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쾌적하며 접근성이 매우양호
- 가액: 평당 22만원(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전 세 : 3억1천

- 위치 : 경기
- 부지 : 4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6억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8억 5천만원

부산 온천장 사찰

- 총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절(사찰)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활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람

055)934-4488
010-3521-6920

포 교 원 안 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 3층건물 중 3층
- 평수 67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주차시설 무한가능함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9924-0013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8억

041)551-8672
011-9413-8040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대구 불사가 일어나는 포교원. 말이 필요없다

- 최고의 위치, 최상의 지역, 불심의 고장
- 앞에는 큰 대로 뒤는 산
- 3층 건물 중 3층 (옥상 산신각 사용가능)
- 49평, 법당 15평 • 삼존불, 아미타, 지장, 관음(후불도)
-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큰방1, 작은방1
- 공양간, 욕실, 화장실 • 모든 것이 최신시설로 됨
- 몸만 오세요 비구니, 보살님 한해서
- 가액: 5천만원 (가격절충)

010-5015-2267/053)634-2257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포 교 원 안 내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거리
- 2층 약 50평(1층 시장)
- 전세 5천만원
- 월세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외 시설완비 (법당,주방,침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495-4678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정남향)
- 면적: 총대지 320평
- 부대시설: 법당, 조립식 철골 24평(단청필) 석탑,화실,조립식 24평 요사,적벽돌기와 27평,황토방 ,4평
- 가액 : 1억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절충)

02)2618-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대지 :19,217㎡(5,830평)
  건물 : 4개동 (법당, 요사채 등)
- 법당,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급) 안 내

- 위치 : 현시세 절반으로 입주
- 경북 고령군, 대구에서 30분 국도인접(버스승강장)
- 대지:400평, 건평75평
- 법당,삼존불,방7개, 대형주차장 완비
- 특징:불교특화사업을 유치 할 수 있는 좋은곳(사리불 요양원등)
- 인수가액:(융자9700만안고) 9700만원에 인수

017-501-2315(유담)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010-4876-5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찰(급)안내

- 위치 : 진천-오창-천안 경계선
- 부지 : 2,000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요사채 2층건물
- 1동 1층건물 3동 미륵佛, 산신, 용왕님(방 많고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000만원 (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011-412-24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 3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보증금 10,000,000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32)655-66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시장 부근
- 평수 2층. 60평 옥상 外 다락방 5평 정도
- 법당 (아미타삼존불, 약사여래불, 칠성여래불)
- 방3칸, 공양간, 에어컨 3대
- 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56-14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시장부근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상봉 터미널 근처 (상봉역에서 가까움)
- 건물: 5층 건물에 2층에 있으며 42평정도
- 방3, 공양간 법당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무료
- 지방에 불사관계로 인해 급 안내 결정.인연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0-9401-4058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3천만원

010-3112-3513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48.68㎡ (빌라 25평형)
- 시장근처 대로변
- 뉴타운 지분 18평
- 가액: 2억 3천 5백만원

011-448-0840

문경세재 아담한 암자(사찰) 최고의 명당 자리 절터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 종교용지 730평방미터
- 1평방미터 가격 150,000원 땅값 암자 명회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건물내역 : 산신각 1동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건물 (증여) 건물값은 받지 않고 드립니다)

011-9535-11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외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영산IC에서 10분거리) 화왕산 군립관광지
- 평수: 대지 (종교부지 600평)법당 30평/산신각/칠성각/CCTV
- 요사채(60평, 방4,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20평)텃밭
- 특징: 산밑에 위치, 계곡 및 실개천, 전경이 100여호 마을과 사찰이 도로 인접하여 교통편리한 기도사찰, 부곡온천 10분
- 가액: 3억 8천만원, 유동가격 대지40~50만원, 시세이하양도
- 스님 건강문제로 급양도/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읍 용계리 읍내에서 차로 10~15분 거리
- 토목 완료한 전 793평 남동향, 시멘트 포장도로 접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토곡산 7부능선, 도로와 장래성
- 가액: 3,900만원

010-936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영산IC에서 10분거리) 화왕산 군립관광지
- 평수: 대지 (종교부지 600평)법당 30평/산신각/칠성각/CCTV
- 요사채(60평, 방4,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20평)텃밭
- 특징: 산밑에 위치, 계곡 및 실개천, 전경이 100여호 마을과 사찰이 도로 인접하여 교통편리한 기도사찰, 부곡온천 10분
- 가액: 3억 8천만원, 유동가격 대지40~50만원, 시세이하양도
- 스님 건강문제로 급양도/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비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안남면
- 평수 12평, 2필지
- 건물 1700만원
- 토지세 1년에 25만원
- 텃밭, 주차 有
- 스님, 철학인, 일반인
- 모두 가능한 도량

010-9288-004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외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평수 : 30평(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 탱화, 최상급 인등)
- 유동인구 많은 APT 밀집지역,
- 등산로 최고위치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534-3646

포 교 원 인 수 하 실 분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하철 3번출구 앞 (바로옆 롯데마트에 무료주차 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 시설 완벽하며,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8677-733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500평
임야 : 1만 5백평 (임야 입구 30만평 대형저수지)
田 : 약 600평 (국도 옆) (건물 신축 가능)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전시관 내 약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외 1,300 희귀 불상 전시 (국내최대). 전시관 외벽 일체 크리스탈 장식 만다라 액자로 장식. 년간 10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 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도 황홀함에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민간방송 총 17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상호절충 (임야, 사찰, 전 불할 매매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 또는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을 입력 하십시오

■ 연락처 : 054) 249-1023. 010-4504-0174
(필히 내왕 하셔서 직접 보십시오)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좋은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000평, 임야 500평
- 별도부지 230평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11-373-06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쌍문 1동
- 우이천 바로 앞, 차도 5분거리
- 공기 맑음
- 법당1, 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약 15평
- 보증금 1300만원 월 20만원

010-5470-18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동변동
- 북대구 IC에서 2분거리
- 층수 5층중 5층 .엘리베이터 有.
- 77평, 방3개, 주방, 거실, 욕실
- 옥상 단독 사용
- 보증금 5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8000만원 투자 시설비 3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상담 요망

010-4944-6661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평수 : 30평(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 탱화, 최상급 인등)
- 유동인구 많은 APT 밀집지역,
- 등산로 최고위치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534-364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공찰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3천만원)

017-787-66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외동
- 1층 50평
- 아늑한 포교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011-9322-88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 건물 42평
- 삼존불, 지장보살
- 즉시 법회가능
- 전세 5천만원

010-3506-22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31)677-9950~1

봄을 기다렸다, 운동 시작이다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한다 -〈불방일경〉-

봄봄봄 봄이 왔다. 영하 18℃까지 기록하며 유난히 추웠던 겨울 뒤 찾아온 봄이라 더욱 따사롭다. 봄 햇살도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난 설 연휴에 늘어난 몸무게는 고장 난 저울 바늘처럼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데 군살을 감춰주던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춥다는 핑계로 미뤄 두었던 운동, 더는 미룰 수 없다. 부지런히 시작하자.

아침운동이 좋을까? 저녁운동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침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저녁운동은 근육 생성에 좋다. 아침운동은 공복에 저녁운동은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적당하다. 운동 효과는 다르지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쌓여 있는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면에 저녁운동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을 태우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보다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된다. 체지방 연소든 근육 생성이든 결과적으로는 모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므로 시간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편한 시간에 하면 된다.

고령이라면 오전보다는 비타민D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 따뜻한 오후 1~2시 사이에 운동 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 수축 등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각종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무리 없이 걸을까? 힘차게 달릴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걷기이다. 고령의 어르신들과 고도비만의 환자들에게도 좋다.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이다. 운동 강도가 약한 반면에 특별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 편리하고 풍경을 즐기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달리기는 청소년부터 중 · 장년층까지 평소 체력에 자신 있는 분들께 권한다. 달리기는 운동 강도가 높아 체중 조절과 성장 발육에 효과적이다.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운동의 즐거움이 배가 되고 흠뻑 흘린 땀은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해 피부도 좋게 만든다.

달리기는 걷기에 비해 몸에 충격이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이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귀 덮는 모자와 장갑 필수

봄은 일교차가 크다. 야외운동을 하기에는 아침저녁으로 아직 쌀쌀하다. 그렇다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자니 망설여진다. 운동할 때는 조금 춥다고 느낄 정도의 옷차림이 알맞다. 운동 후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떨어지므로 두껍게 입기 보다는 여러 겹 겹쳐 입고 운동 중 덥다고 느낄 때 하나씩 벗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를 덮는 모자와 장갑은 필수다. 체온의 80%가 머리와 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맨손으로 운동하는 경우 무의식중에 손을 주머니에 넣게 되는데 이런 자세로 운동하면 어깨가 경직되고,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운동복은 바람이 잘 통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소재가 좋다. 드라이 핏 소재처럼 발한 · 발수 · 속건 기능을 가진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면 소재의 옷은 땀에 젖었을 때 잘 마르지 않아 오히려 몸의 열기를 빼앗아 감기에 걸리기 쉽다.

운동 전 스트레칭 오히려 위험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은 엄연히 다르다. 준비운동은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열기를 불어 넣는 것이라면, 스트레칭은 이미 열기가 가득한 근육을 충분히 늘려서 가동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다.

추운 곳에 나가면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제자리에서 뛰는 것으로 준비운동 할 것을 권한다. 빨리 걷기와 제자리 뛰기가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관절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 전 '국민체조'는 삼가자. 새벽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집밖에 나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단축 마라톤 참가로 동기부여

지금 당장 5km 단축마라톤을 신청하자. 보통 참가비는 2~3만원 수준이다. 한번도 마라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라면 5km정도의 완주는 가능하다. 참가비를 내면 1~2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운동화에 묶어 자신의 기록을 잴 수 있는 기록 장치가 우편으로 배송된다. 자신의 랩타임은 경기가 끝난 후 한 달 이내 증명서로 날아온다. 자신의 기록을 증명서로 받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라톤의 묘미를 하나 더 꼽자면 차도를 달리는데 있다. 마라톤을 위해서 특별히 도로를 통제하기도 하는데 반대편 도로에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불교 108 울트라 마라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는 제1회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를 4월 23일 개최한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저녁 6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7시간에 걸쳐 108km를 달린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정해선 회장은 "평소에 마라톤에 관심있던 사람이라면 남은 8주 동안 주말에 40km정도씩 한번에 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완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0km 지점에서는 따뜻한 식사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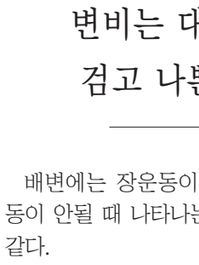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접수중인 주요 마라톤 대회

대회 날짜	대 회 명	장 소	연락처
3월 20일(일)	제2회 서울오픈마라톤	서울 한강시민공원 잠실트랙구장	(02) 3210-1666
4월 3일(일)	2011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	삼척 엑스포광장	(042) 638-1080
4월 10일(일)	2011 아디다스MBC한강마라톤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02) 338-6564
4월 17일(일)	제8회 호남국제마라톤대회	광주 월드컵경기장	(062) 519-0730
4월 23일(토)	불교108울트라마라톤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출발	(010) 5398-1279
4월 24일(일)	장애인을 위한 2011나라사랑 전국 마라톤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042) 638-1080

건강칼럼

대변으로 하는 건강체크



이경제 원장
래오 이경제한의원

지난주에는 혼자서 매일 확인 할 수 있는 우리 몸 검진센터로 혀와 소변을 소개했다. 혀는 설태 없이 빨갛고 깨끗한 것이 가장 좋고, 설태의 색이 진해 질수록 병환이 깊다는 증거다. 소변은 혈액 순환의 찌꺼기로 소변의 양, 색깔, 깨끗한 정도를 실피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소변도 색이 진해지면 질병이 있다는 신호이다.

세 번째 검진센터는 대변이다. 1930년대의 대변양보다 지금의 대변양이 1/4로 줄었다. 이는 건강한 배변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이다. 요즘은 운동량이 부족하고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장기능이 떨어져서 통쾌한 대변을 보기가 힘들다.

장속 발효가 잘 되면 황갈색 대변, 부패가 진행되면 진한 색 대변이 가늘거나 묽게 나온다. 부패가 진행되면 냄새도 지독하고 배가 더부룩하게 된다. 방귀 냄새가 지독한 경우는 반드시 대장을 정기적으로 진료 받아야 한다.

장운동이 잘 되는지 알고 싶으면 복부를 눌러보자. 눌러서 속이 부드러우면 좋고, 눌러서 딱딱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나쁜 것이다.

대변의 색은 음식물과 쓸개즙 색소로 결정된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발효과정을 걸쳐 산성이 되어 황색으로 변하게 되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대변은 알칼리성으로 변하여 갈색이 된다. 그러므로 황갈색의 대변이 정상이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모발검사 등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소변, 혈액, 모발에 건강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검사는 몸의 일부분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증명한다. 물리학에서는 사과를 단층으로 절단한 면에서 '사과 전체'의 정보를 파악하는 '홀로그램'이라는 실험을 통해 일부로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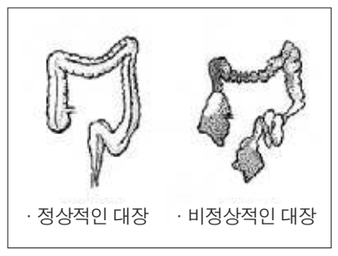
변비는 대장의 수분부족, 설사는 수분과다 검고 나쁜 냄새 대변은 건강의 이상 신호

배변에는 장운동이 중요한데, 장운동이 안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항상 피곤하다.
- 피부가 안 좋다.
-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
- 변비가 있거나 변이 묽다.
- 알러지, 비염, 천식 등이 흔하다.

변비는 대장의 수분부족이고, 설사는 대장의 수분과다이다.

대변의 2/3는 물이기 때문에 대장내의 물이 부족하면 변비가 된다. 그리고 묽은 변이나 설사는 유해세균과 염증 때문에 대장 내에 물이 과다해져서 생긴다.


· 정상적인 대장 · 비정상적인 대장

대변은 굵고 통쾌하게 볼수록 좋다. 냄새가 나쁘거나 색깔이 검은 쪽에 가까우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뱃속 장운동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장속 발효가 잘 되면 황갈색 대변, 부패가 진행되면 진한 색 대변이 가늘거나 묽게 나온다. 부패가 진행되면 냄새도 지독하고 배가 더부룩하게 된다. 방귀 냄새가 지독한 경우는 반드시 대장을 정기적으로 진료 받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진맥(맥법)으로 질병을 진단했고, 혀는 설진으로 유용한 진단법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의학지식이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혀, 소변, 대변은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도 내 몸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날마다 혀, 소변, 대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익히면 그야말로 매일매일 건강검진의 날이 되는 것이다. (02)576-7575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종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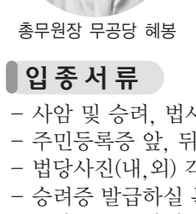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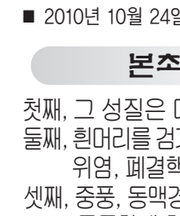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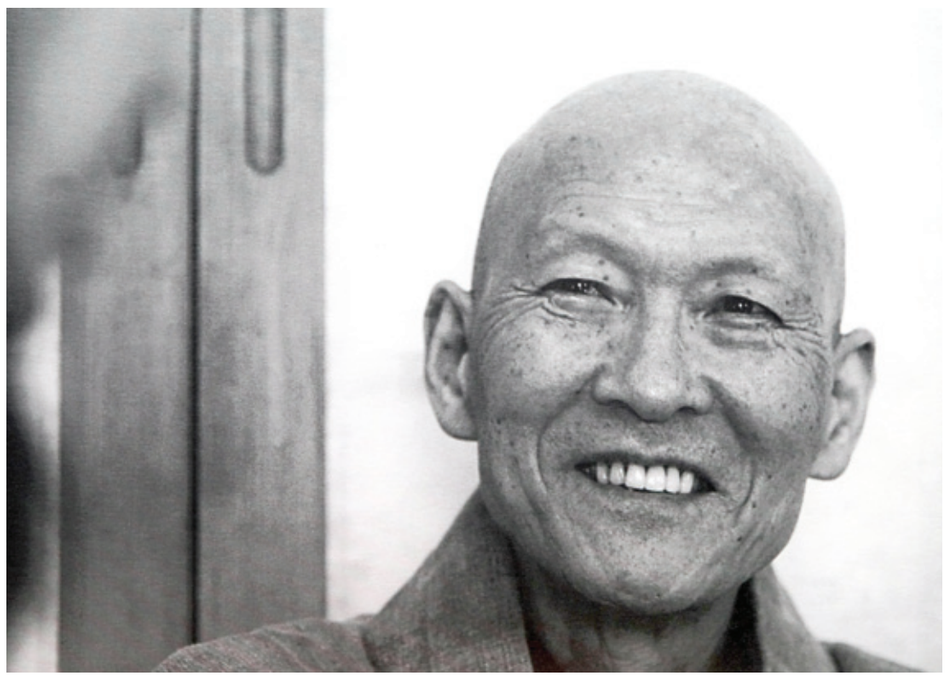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스님의 눈빛은 마음 속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

근 승 랑 작가, 법정 스님 입적 1주기 맞아 ‘비구, 법정法頂’ 사진집 출간











법정 스님의 입적 1주기가 지났다. 1주년 추모법회를 앞두고 길상사 주지였던 덕현 스님이 홀연히 모습을 감추는 등 시끄러운 잡음들도 있었지만, 스님의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들은 끊이지 않았다. 입적 1주기를 맞아 추모 여행, 추모 서적들이 출간 되는 등 스님의 흔적을 더듬기 위한 사람들의 행보도 줄을 이었다.

최근 사진작가 근승랑씨는 법정 스님 입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진집과 법정 스님 법문 육성 동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3월 2~8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비구, 법정法頂’ 추모 사진전을 함께 연다. (02)734-7555

신도들조차 몰랐던 스님의 일상

“사진집 통해 무소유 정신 느끼길”

무소유. 단 세 글자로 법정 스님은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급급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스님의 말씀은 세상의 죽비가 됐다. 스님의 말과 존재는 급기야 ‘법정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세간의 이슈가 됐다.

사람들이 이토록 스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무소유’하라는 법정 스님의 말 때문이 아닌, 그 말빛을 갚기 위해 평생을 가난과 벗하며 살아온 수행자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님의 곁에서 스님을 지켜본 지인들은 무서울 정도로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다 가신 분이라 말한다. 스님은 사소한 물건 하나도 곁에 두는 법이 없었다. 스님이 남기신 건 평소 입으신 가사가 전부였다.

사진작가 근승랑씨가 출간한 ‘비구, 법정法頂’ 사진집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신도들조차 몰랐던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일상 모습들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사진 기자들 사이에선 법정 스님은 사진 찍기 힘든 인물로 유명하다. 워낙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승랑 작가의 사진들은 더 가치 있고 귀한 자료이다.

“저와 스님만이 통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제게 보내면 그땐 카메라 셔터를 멈추고 렌즈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근승랑씨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들은 2004년 가을부터 2010년 3월,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까지의 기록들이 담겨있다. 2004년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하던 작가는 취재차 길상사를 찾았다. 불교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그 길로 7년 동안 출근 전 길상사에 들러 사진 공양을 올렸다.

“법정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 시작한 건 사진공양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부터입니다. 가을 정기 법문을 마친 법정 스님이 경내 한 바퀴를 돌 때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스님의 눈빛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 때 그 눈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진 공양은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눈빛은 마음 속의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이자 사진 공양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으니까요.”

그의 사진집에는 불제자로 사셨던 스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신도들에게 법문하러 가기 위해 나서면서 “노래 부르러 가볼까?”라고 표현했던 스님, 불자에게 깊이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하는 스님, 빳빳한 행전을 매는 스님,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향을 음미하는 스님, 안경을 끼고 글을 쓰시던 스님 까지 다양한 스님의 모습이 18컷의 사진에 녹아있다.

작가는 “7년간 길상사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구성된 사진집이라 스님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처음부터 불교와 스님을 잘 알았더라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럽고 죄 송 하 다 ” 며



“나이 들수록 선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 대신 아집만 들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사진집을 통해 독자들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평생을 불제자로 사셨던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구, 법정 | 근승랑 사진 · 지음 | 동아일보사 | 4만8000원

이은정 기자

한국의 선시감상②

고려 원감국사 충지 선사의 ‘한중잡영(閑中雜詠)’

권박인산색(卷箔引山色)
연통분간성(連筒分澗聲)
종조소인도(終朝少人到)
두우자호명(杜宇自呼名)

발을 걷어 산 빛을 끌어들이고
대나무 통을 이어 시냇물 소리 나누어 오네.
아침이 다하도록 찾아오는 이 적은데
뻐꾸기는 제 이름만 불러대누나.

〈동문선(東文選)〉에 승려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시문이 실려 있는 고려 원감국사 충지(圓鑑國師沖止: 1226~1292) 스님은 당시 사대부 집안의 자제로서 19세에 장원급제했다. 스님은 일본 사신으로 파견되는 등 활발한 정계활동을 했다. 그러나 벼슬길[宦路]에 대한 회의 등을 이유로 29세에 출가수행을 시작해 61세 되던 해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 제6세(世)가 됐다.

이 시는 한가로운 일상의 한 날을 읊은 시로 산속에 사는 스님의 단촐하고 맑은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스님은 이른 봄날 아침, 발을 걷고 대나무 통을 이어서 산 빛과 물소리를 한껏 가진다. 온 천지에 가득한 물소리와 산 빛을 어찌 끌어오고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스님은 역시 대선사답다.

동사 ‘인(引)’과 ‘분(分)’을 사용함으로써 색과 소리로 표현되는 육경(六境)을 하나의 고유한 자성(自性)을 가진 개체로 완성시키고 의미 지운 것이다. 그뿐이랴! 마지막구의 ‘자호명(自呼名)’을 통해서 걸림 없는 대자연의 진여(眞如), 바로 불이(不二)의 도리를 설파했다.

뻐꾸기는 어떤 인위도 조작도 없이 그저 자신의 품(稟)받은 고유한 자성(自性)을 발현시켜 울 뿐이다. 전구(轉句)의 ‘소인도(少人到)’가 내포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 불이(不二)는 바로 스스로의 참다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상대의 존재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침범하지 않을 때, 나아가 각자의 모습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인정할 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불통(不通)의 시대, 이 시는 소통과 화합의 진정한 의미와 그 답을 찾게 하고 있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대행 스님

백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주지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생전에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데 대해서 좀 거론하려고 합니다.

첫째, 삼천 년 전이든 오천 년 전이든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는 방도와 영원하다는 자체를 일러 주셨죠. 그리고 나로부터 하라는 말씀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마음과 과학의 발전이 되지 않았을 때라 절 일을 도와도 낙타나 소달구지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도 그렇게 도와라. 낙타도 이렇게 절 일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소도 달구지를 달고 일을 해서 도와준다. 그렇게 아니 하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모두 그렇게 아니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때 당시의 시절에 맞게 방편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팔만대장경의 말씀도 지금 시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토론해야 됩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해서 똑같이 말을 할 게 아니라 뜻은 같고 모든 게 다 같아도 방편의 용어는 바꿔서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트럭이나 짐차나 비행기나 이런 걸로 나를 것을 "소달구지에다 해라." 이런다면 말이 됩니까. 또는 "낙타로 도와라."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 그 이름 자체의 용어를 바꿔서 지금 시대에 맞게 대치해서 불자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토론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마음의 발전과 더불어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생활을 개발하면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생활이 법이지요. 나를 빼놓고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첫번째로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이런 한마디에 서로서로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신다면 더욱더욱 좋고요.

둘째, 우리가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야단들인데 말입니다, 네 종교가 틀리느니 내 종교가 잘하느니 하고 야단들인데, 우리 지구가 버스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버스 안에 다 타고 있다면 그 버스 안에서 버스가 이리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안에서 이거는 내 걸상이니 네 걸상이니 하고 싸우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어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버스도 다 한 버스고 사는 방식도 하나고 생활 자체도 하나로 돌아가고 사람 마음도 하나로 돌아갑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다 같습니다.

비유한다면 염주줄은 마디가 없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염주알은 각각 다 다릅니다. 염주알이 다 떨어져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와 같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습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눈과 귀에 의해, 무의 세계 정신세계를 보지 않고 물질세계만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아니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되고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짓는 마음, '아이구! 요거는 간단하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가졌단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갈 수 있고 땅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큰가 하면 없고 없다고 보면 크고, 큰가 하고 보면 작고 작다 하고 보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묘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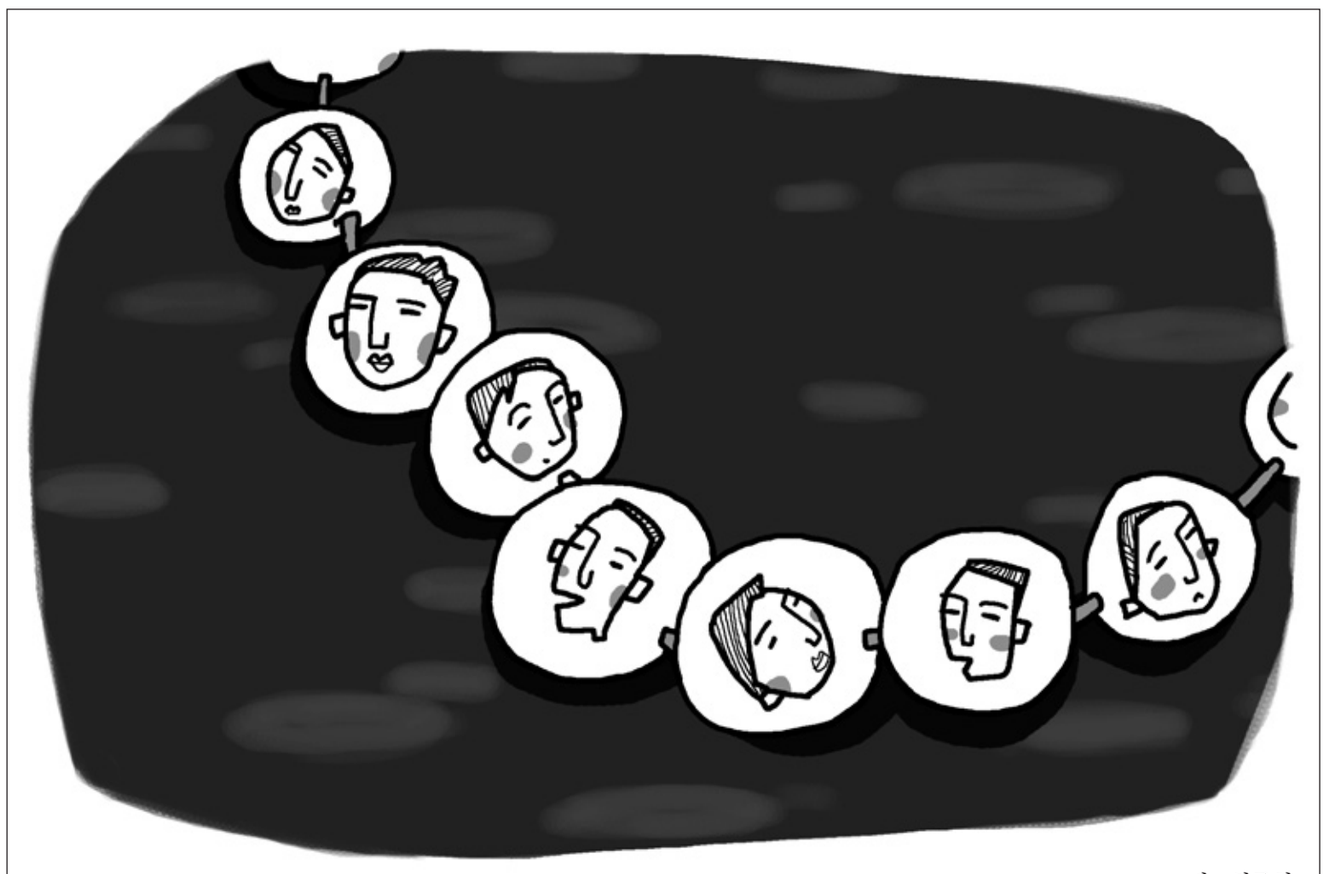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그다음에 셋째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체 물질이 다 지수화풍입니다. 태양까지도 은하계까지도 모든 일체가 지수화풍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수화풍이니까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죠?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아니라면 어떻게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지수화풍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상대성 원리도 있고 세상도 벌어졌고 종교도 있고 성스러운 사대 성인들도 있는 걸 알았고 부처님도 믿게 됐고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주춧돌처럼 아주 바탕이 돼서 있습니다. 바탕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본래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화풍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쓸 수 있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작고 큰 거를 가려서 내가 닥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발전에 의해서 다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발전소가 있고 모두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 쓸 수가 있죠. 불도 켤 수가 있고 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공장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근기에 따라서 바로 그 전력을 끌어 쓸 수 있는 용력이 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전력은 본래 있는 것입니다. 자력 전력 통신력 광력, 이게 본래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없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데에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큰 공장을 돌리거나 가정에서 가정살이를 하거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용량을 끌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력을 끌어 쓰듯이 여러분 마음 차원의 그릇대로 다 내 마음속 자가발전소에서 그렇게 끌어 쓸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현실의 발전소는 꺼지고 켜지는 게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자가발전소는 꺼지고 켜지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부터, 나부터 알아야 가설이 된 줄도 알고 바로 자가발전소가 있는 줄도 알고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직결이 돼 있는 줄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전력 가설이 돼 있듯이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거를 내가 알게 된다

☞ 26면으로 계속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옷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내가 싹이라면 제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 25면에서 계속

이겁니다.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불(佛)이라는 것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지수화풍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만생의 바로 그 물질이 전부 불입니다, 불! 생명이 말입니다. 생명은 불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는 불이요, 또 교는 말과 말이 통하고, 차원대로 모습이 다르지만 차원대로 다 자기 말들을 하고 돌아갑니다. 통하고 돌아가요. 일체가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말로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고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를 숭상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주 전체가 불교니까요. 어느 종교도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불교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 목탁이나 치면 불교인 줄 알지 마시고, 불교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그대로 여여하면서 진리인 것입니다. 불교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포함해서 일체가,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나부터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있어야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 달마 대사도 그랬거니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름은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모든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상대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네 차원의 참뿌리를 안다면 일체 만물의 뿌리를 네 한 뿌리로서 오고 감이 없이 바로 알진댄, 그렇게 너부터 앎으로써 그 안테나에, 즉 말하자면 주장자에 일체제불의 주장자가 전부 한 주장자가 되는 것이며 찰나찰나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것이다. 천백억화신으로서 나고 들면서 일체 만물만생의 차원대로 또는 모습대로 아니 되시는 게 없이 응신으로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나를 모르고는 일체가 돌아가는 도리천의 이치를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 사랑 하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사랑 소리를 자주 하는데, 허허허…,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바로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진실로 곤충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더불어 널리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한생각에 지옥이요 내 한생각에 바로 승천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면서 체험도 하고 감응이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물리가 터지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싹이라면 뿌리가 있는데 그 싹이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네? 딴 나무를 믿고 딴 이름을 믿고 딴 형상을 믿는데 에너지가 자기 나무로 가겠습니까?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제 뿌리에서만이 제 나무를 푸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뿌리에서만이 너그럽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거고 물리가 터지게도 하고 깨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즉 말하자면 철분 황분 흙의 지분 등 모든 것을 위로 올려보내고, 나무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고, 인간의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자기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하고 깨치게 하고, 문 없는 문을 넘게 하고 빗장 없는 빗장을 쥐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늘 내가 항상 바깥으로 찾는다면 아무 공덕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만날 끄달리다가 이 차안 속에서, 즉 말하자면 어항 속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듯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가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것을, 한 찰나도 안 되는 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 때문입니다. 먹어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수박이라면 과감히 그냥 동강을 내서 맛을 보고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씨를 되심어서 고다음 해에 수박은 되남고 되남고 해서 영원한 진리의 수박이라는 걸 알게끔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항상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육신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걸 생각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저 강도 건널 수 없고 또 불바퀴를 건너뛸 수도 없고 마구니 소굴을 건너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못 삽니까? 왜 마음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참 이상하죠? 그 끈에 매여서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 체가 없다 그래도 널리 생각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스님,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해도 "알았어." 이러면 족하지 "나는 거기 강을 못 건너간다." 이래야 되나요? 몸체는 강을 못 건너갈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못 건너가겠습니까?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온 관습이요 여러분이 살아온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관리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소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우리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를 경영하려고 해도 회장이 없으면 직원도 없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회장도 없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어떻게 들으며 우리가 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거죠.

>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 **요만한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가도 당신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 드렸죠? 또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의 뜻이 내 뜻이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부처님한테다 전체 둥글려서 하나로 묶어 놓고 일 배를 올려도 좋지만, 부처님과 더불어 몽땅 내 마음으로 둥글려서 하나로 놓고 일 배를 한다면 우주 전체가, 죽은 세상 산 세상이 일 배로 떡 하나를 먹고 그 떡 하나는 되남는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이라고 한 거지 부처님 형상에다가 그냥 바치는 게 공양이 아닙니다. 불 켜는 것도 그렇고 향 올리는 것도 그렇고 다기 물을 떠 놓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공양입니다. 마음의 공양! 부처도 귀신도 중생도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내 한생각에 귀신을 만들고 내 한생각에 부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 봤자야 자기만 손해지 뭐 이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야죠. 염주, 묵주 이런 거 모두 있죠?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교 믿는 사람도요. 나도 가톨릭교를 좀 다녀 봤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가톨릭교와 기독교와 알라신교와 티베트 불교와 모든 게 둘이 아니에요, 근본 내 뿌리부터 알아라 하는 것은…. 묵주나 염주를 보셨죠? 백팔 염주를 백팔 번뇌라고 하는데 그건 생활이에요. 염주 알은 여러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염주줄은 바로 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생활하는 도리를 그대로 염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시발점에서 염주를 굴리고 갔는데 종점으로 왔단 말입니다. 종점으로 와서 보니까 시발점과 종점이 교차로가 됐단 말이지요. 교차할 수 있는 그 교차로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생과 사예요. 그래서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차로에서 교차를 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다시 오늘로 올 때에 또 모습을 쓰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두꺼비, 뱀, 가지각색으로다가 다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으로 있다가 돼지같이 살았으면 돼지 모습으로 태어나겠지요. 돼지 모습으로 태어나면 하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돼지로 사는 습이 또 붙어 가지고 그 습 속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되기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계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죠? 아니, 희미하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한번 소가 돼서 맞아 보고 한번 돼지가 돼서 모가지가 따지는 아픔을 가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당해 보지 않았다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이론으로만 밝다고 해야 되겠죠. 이론은 아무 데도 쓰잘 것 없어요. 말을 백 마디 천 마디 만 마디 해도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요 말 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겠군요.

여러분, 둘이 아닌 도리를 짐작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멀리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부터 알려고 하세요. 내 몸속에 생명체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만이 아니죠? 위장 식도 방광 척수 척추 간장 심장 위 대장 소장, 이 모두를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움직이게끔 작용하고 돌아가는 생명체들이 집합돼서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몸뚱이는 그네들의 집합소지 아니, 어떻게 나라고 하겠습니까? 커피를 한 잔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커피 먹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럿이 공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벌었다, 내가 한다, 내가 망했다, 내가 줬다, 내가 살고 있다, 저거는 밉고 나는 착하고, 만날 밉다 이쁘다 하고 상반된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고 이러니까….

묘한 도리가 또 있습니다. 고 마음, 고렇게 쓰는 마음이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입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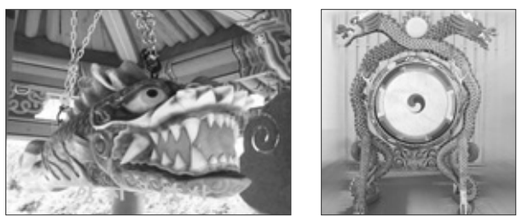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에 숙명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일 테죠.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보고 듣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또는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남의 속을 빤히 다 알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숙명통이라는 게 첨보돼서 천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처럼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솔솔 나오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3월 27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1.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물 : 태징,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다게작법, 법고춤, 운심게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 세상보기

주권국가 포기한 '갱신 가능한 대여 협상'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 소장

2011년 2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약탈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외규장각 문화재는 병인양요에 이어 두 번째로 약탈되고 말았다. 이번 갱신가능대여 합의에 대해 정부는 프랑스의 양보를 끌어낸 협상이라 말하고, 일부 언론은 실리를 얻은 협상이라 억지 포장하지만 필자는 이번 협상을 실패한 협상, 굴욕 협상이라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임대'를 제안했기에 '임대'로 결론이 이미 정해진 협상이었고, 약탈된 외규장각 문화재 중 도서에만 한정된 협상이었다. 게다가 5년 갱신가능임대라는 굴욕적인 조건에 자동갱신연장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협상을 두고 실리를 말하는 것이 우습다.

첫째, 이번 갱신가능임대 합의는 문화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외규장각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필자는 2008년부터 시민의 이름으로 프랑스 정부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소유권 반환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 2월 6일 외규장각 환수 재판을 지루하게 끌고 가기위해 우리 문화연대의 항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프랑스 문화부가 결국 프랑스 행정법원의 최후통첩에 손을 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제 외규장각 환수 재판은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갱신가능대여 합의를 해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둘째, 이번 임대협상은 굴욕적인 협상이자 신종등가교환 협상으로, 외규장각 문화재를 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제물로 삼고 말았다. 외규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한 프랑스 르몽드지 기사나 2015년과 2016년에 열리는 한·불수교 130주년 행사에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재가 프랑스에서 전시된다는 사실은 '신종등가교환' 방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 상의 반환'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 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협상에 임한 결과, 외규장각 문화재는 5년 단위로 노심초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굴욕적인 갱신가능대여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았다.

셋째, 이번 갱신가능대여 협상은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준 협상이다. 약탈임이 분명한 문화재를 '갱신 가능한 대여' 합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10만 점이 넘는 해외반출 문화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선례를 들어 '임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약탈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건만,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의 과거를 긍정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제공: 프랑스"라는 꼬리표가 붙은 외규장각 문화재를 물려주게 됐다. 잘못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다.

넷째, 왜 외규장각 도서만인가? 함께 약탈당한 문화재는 어찌됐나?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도서뿐만이 아니라 큰 의궤3백 권, 작은 의궤 9권, 흰색 나무상자 3개에 들어 있는 작은 책 31권, 중국 지도 1점, 조선지도 1점, 일본 지도 1점, 평면천체도 1점, 족자 7개, 한문이 적혀 있는 회색 대리석판 3개, 하얀색 대리석판이 하나씩 들어있는 작은 상자 3개, 투구가 붙어 있는 갑옷 3벌, 가면 1개도 함께 약탈당했다. 이 목록은 문화연대의 약탈문화재 환수 소송 목록에 포함돼있다. 외규장각 도서를 한시만 갱신가능하게 빌려오면서 위의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병인양요의 약탈에 대해 프랑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없어진 은궤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인가?

'사실 상의 반환'이나 '갱신 가능한'이라는 수식어는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번 갱신가능대여 협상은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내팽개친 협상이며,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준 실패한 협상에 불과하다. 이에 필자는 굴욕적 갱신가능대여 협상의 내면을 샅샅이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갱신가능대여가 아닌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완전 반환을 위한 외교협상을 다시 시작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서른 즈음에…



서화연
이천시보건소 공중보건의

한달 전 철원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는데, 한적한 들판과 먼 산등성이가 눈으로 덮여 풍경이 아름다웠다.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데, 포천 산정호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보였다. 멀지 않았다. 단지 약 5㎞정도 돌아가면 되는 길이었다. 순간 옆길로 빠지기 좋아하는 고질병이 재발했다. 가볼까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 사진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곧 포기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낯설음을 느꼈다. 사진기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다니! 여자 친구도 아닌 사진기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서 포기한 행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행하게도 내가 사진기랑 연애하고 있다는 의미였을까?

언뜻 드는 생각은 '기억' 때문이다. 잊혀진 시간은 사라진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받은 영향, 경험들, 내가 한 생각, 결정, 행동들이 축적되고 기억된 결과라고 한다면,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는 적어도 나에겐 '없는 것'이지 않을까? 내가 산정호수를 사진기 없이 가서 설경을 즐긴 경험이 없는 것, 사라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아름다운 장소에 특별한 사람과 가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나에겐 기억에 관한 흥미를 갖게 했던 특별한 기억(?)이 있다. 의과대학은 본과 3·4학년 때 병원실습을 돌게 된다. 소화기내과 실습 중에 수면내시경 시술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적당히 약을 혼합해 주사한 후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시술인데, 환자는 수면내시경이 아닌 일반 위내시경과 같이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며 검사를 받지만, 검사가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냥 편안히 잠을 잔 것으로 안다. 주사한 약이 진행성 기억상실증(Anterograde Amnesia: 시점 이후의 새로운 사실들을 기억 못하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때 이런 의문이 들었다. 시술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당한 것인가? 당하지 않은 것인가? 이 의문은 그 당시 꽤나 나의 재미있는 화두였다. 이 의문은 다음의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과 맞닿아 있었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었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다른데 말이다.' 그때 내가 찾았던 잠정적인 대답이 '기억의 공유'였다.

사실 기억에 관해 흥미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과거는 기억에, 현재는 직관에, 미래는 기대에 존재한다"는 '시간론'을 펼쳤다. 베르그송은 "기억이나 기대가 없다면 '없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만이 그것의 부재인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찰은 놀랍게도 불교 안의 강력한 전통으로 존재한다. 바수반두(Vasubandhu)가 유식불교의 전통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장식(藏識)'으로 번역되는 '알라야식'이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 알라야식, 즉 기억의식을 제거하는 데서 다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른이 된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간다. 가수 김광석은 '서른 즈음에'란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기 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아마 그도 서른 즈음에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 본 것이 아닐까? 매일을 살면서 채우는 것들, 나의 말과 나의 결정들, 내 행동들은 나에게 쌓여간다. 내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의 몸이, 나의 습관이, 아니면 옆의 누군가가 기억할 지도 모른다. 난 가끔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절망을 느끼곤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발전하거나 후퇴한다.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드는 것이지만,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상기한다. 내가 어떤 것을 쌓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알라야식을 끊는 데까지 이를 수 없다면 業(karma)을 잘 쌓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한다. 새해가 두 달이 지났다. 변화하고자 했던 마음이 오랜 습관에 다시 질식했는지 모르겠다. 데카르트의 격언을 다시 새겨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렸던 결정들의 결과이다."

社說

덕조·덕현·덕운 스님에게

2월 28일은 비구 법정 스님의 열반 1주기였습니다.

큰스님을 추모하고, 그 분의 가르침을 되새겨도 모자랄 즈음에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길상사 주지 자리를 두고 덕조·덕현 스님이 자리다툼을 하셨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큰스님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큰스님을 추모해서가 아니라 큰스님과 덕조 스님과의 갈등을 되새김해 자신들의 주장과 의혹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유언이 조작됐다는 해괴한 말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덕현 스님도 많이 힘드셨지요? 큰스님이 떠난 '맑고향기롭게'를 맑고 향기롭게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싸움을 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인의 욕망과 위선에 앞선 스님의 고독한 항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다섯째 상좌 덕운 스님이 말 많고 탈 많은 길상사 주지가 되셨습니다. 첫째, 셋째스님에 이어 다섯째스님까지 길상사로 인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근 봉은사에서도 前 주지 명진 스님 측과 주지 진화 스님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갈등이 절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큰스님의 일곱 상좌 중 어느 스님에 이르러서야 이 구설이 끝이 날까요? 길상사를 창건한 큰스님이, 시주했던 길상화 보살이 이를 보고 무어라 하실까요?

덕조·덕현·덕운 스님의 앞날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현현(顯顯)하길 합장발원 하면서 삼가 글을 올립니다.

말 한마디의 힘

개신교 원로 조용기 목사의 발언에 온나라가 어수선하다.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2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이영훈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정부가 이슬람채권법 입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을 벌이고,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언론들은 조 목사의 이러한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청와대는 조 목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용기 목사의 근본주의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언, 성직자로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은 문제가 분명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의 힘이다.

만약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 불교폄훼와 관련해 많은 말과 행동을 해왔다. 하지만 2000만 불자의 하나된 목소리보다 한 목사의 발언이 더 주목 받는 현실에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조용기 목사 발언은 불교와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조계종, 나아가 불교계는 이번 사건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와 사회가 불자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조계종의 5대 결사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등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소에서 교부)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역학 수강생 모집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들이 직접강의)

■ 육 임 학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이우산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육임학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육임학 교수
▷주요저서 : 『육임입문』, 『육임실전』, 『대육임필법부평주』, 『육임책력』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5일(매주 토요일) 저녁7시~9시30분

■ 기문둔갑 과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조영택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기문둔갑 교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주요저서 : 『기문병방론』, 『기문초급강의』, 『기문중급 고급강의』, 『실전기문』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 9시30분

■ 명 리 학 과 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 (전)서울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전)청주대학교,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주요저서 : 『사주팔자진결(一)』, 『명리대정전』, 『복을 읽는 인상학』, 『수상과 손금의학』등
※ 기초완성반 : 5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 공개강의 및 개강일 : 3월 7일(월요일) 저녁 7시 ~ 10시

■ 관상수상학 과정 (6개월과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 ~ 12시 30분

■ 타로카드 과정 (2개월과정) • 담당교수 : 장진산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2일(매주 수 요일) 오후 7시 ~ 10시

교육장소 :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출구 세종역학아카데미
교육상담 : 정수호교수 011-246-3933 . 053)651-8596